

‘지네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의식세계

유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구비문학 전공

ruyjina@hanmail.net

I. 머리말

II. ‘지네각시 설화’의 남성과 여성 제보자별 특징

III. ‘지네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동일시 양상

IV. ‘지네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의식세계

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지네각시 설화’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의식세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¹⁾에 채록된 65편의 ‘지네각시 설화’²⁾를 대상으로 한다. 한 제보자가 여러 편을 구술하는 경우도 있어 제보자 수는 총 62명이다. ‘지네각시 설화’와 마찬가지로 이물교환(異物交婚) 설화인 ‘구렁덩덩 신선비’(『대계』 수록)의 경우 48편이 모두 여성 제보자이다.³⁾ 이에 비해, ‘지네각시 설화’의 제보자 수는 남성이 약 70%에 이르고 있어, ‘지네각시 설화’가 남성의 경험 및 의식세계와 친밀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설화는 구비 전승되는 이야기로 ‘구술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학이다. 구비 전승되는 이야기는 현실적이면서 감정이입적인 전달방식을 내재한다. 월터 옹(Walter J. Ong)에 따르면, 구술문화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를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해 감정이입적인 방식으로⁴⁾ 현재적 의미를 전달하는 사고와 표현 체계를 가진다. 따라서 구비 설화는 현재적 의미를 전승하는 ‘항상성’과 구술자가 등장인물에게 감정적으로 ‘동일시(identification)’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즉 이야기를 구술하는 제보자의 사상, 경험, 감정 등이 개입되면서 새로운 표현과 방식으로 리텔링(retelling)되는 것이다.⁶⁾ 특히 문학치료학에서는 작품의 서사와 작품을 접하는 개인의 자기서사가 조응할 때 상처가 치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며⁷⁾, 설화의 서사 치료적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1) 『한국구비문학대계』는 전국적 구비 조사 자료의 총서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해 1978-1984년에 채록되어 1980-1992년에 85권으로 출간되었다.

2) 지네각시 설화 유형을 정리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각편의 수에 차이가 있다. 「지네 여인 변신 설화의 지역성과 전승양상」(심민호,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석사학위논문, 2002)이 가장 많은 편수인 66(『대계』 수록)편으로 정리하고 있다.

3) 유진아, 「구렁덩덩 신선비에 나타나는 여성의 스키마와 상흔」, 『정신문화연구』 143호 (2016), 33-35쪽.

4) 월터 J. 옹 지음,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문예출판사, 2014), 76쪽.

5) 위의 책, 77-81쪽.

6) 유강하, 「스토리텔링과 리텔링」, 『중국소설논총』 31(2010), 487쪽.

7)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2008), 250쪽.

구비 전승되는 이야기로서의 '지네각시 설화'에도 제보자 개인의 경험과 상흔이 포착된다. 『대계』의 '지네각시 설화'는 대부분 1980년대 초반에 50-80대의 제보자에게서 채록되었다. 따라서 '지네각시 설화'의 제보자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격변기를 겪으면서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경제적 변화의 과정에 적응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대를 경험하면서 제보자들이 가지게 된 가치관, 감정, 상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지네각시 설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II장에서는 제보자들을 남녀로 분류하여, 나이, 지역, 생년, 거주 이력, 생업, 교육 여부, 결혼 및 자녀 등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III장에서는 '지네각시 설화'의 남주인공 유형을 분류하여 제보자들의 '동일시'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상흔을 구체적으로 관찰해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살펴본 '지네각시 설화'의 동일시 양상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의 의식세계를 고찰한다.

지금까지 '지네각시 설화'는 이물교혼 설화 내지 용사(龍蛇) 설화의 한 가지로서 신성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⁸⁾ 특히 이지영의 「용사설화의 측면에서 본 〈지네치녀〉 설화」는 '지네각시 설화'의 '승천 경쟁' 화소에서 그 신성성이 약화된 의미를 분석하고, 용사 설화로서 '지네각시 설화'의 위치를 정리하였다. 최근에는 '지네각시 설화'를 우울증을 치료하는 작품 서사로서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논문도 있다.⁹⁾ 그러나 '지네각시 설화'의 신성성을 중심으로 이에 내포된 한국인의 의식세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은 '구비 전승되는 설화의 특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문학치료를 위한 작품 서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네각시 설화'의 각편에 나타나는 상흔과 그 치료의 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남성과 여성 제보자의 삶을 그들이 구술한 서사와 연결시켜 분석함으로써, '지네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경험

8) 이지영의 「용사설화의 측면에서 본 〈지네치녀〉 설화」(『구비문학연구』 4집, 1997)에서는 '지네각시 설화'를 용사 설화의 한 가지로 보고, 신성성이 약화되면서 인간중심의 사고가 중시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고 보고 있다. 김정석의 「『지네각시』 설화의 전승과 그 의미」(『민족문화』 제16집, 1993)는 '지네각시 설화'를 이물교혼 설화의 하나로 보고, 다른 이물교혼 설화 유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9) 정운채의 「우울증에 대한 문학치료적 이해와 〈지네각시〉」(『문학치료연구』 제5집, 2006)에서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작품서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와 상흔을 관찰하고, 나아가 ‘지네각시 설화’에 내포된 현재적 의미와 한국인의 의식세계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II. ‘지네각시 설화’의 남성과 여성 제보자별 특징

『대계』에 수록된 ‘지네각시 설화’를 65편으로 정리하였다. 남성 제보자가 구술한 각편은 모두 44편이며, 여성 제보자가 구술한 각편은 21편이다. ‘지네각시 설화’의 제보자 중 남성은 약 70%로서 여성 제보자보다 2배 이상 많다. 표1과 표2는 ‘지네각시 설화’를 구술한 남성과 여성 제보자의 정보를 각각 정리한 것이다.

표1-‘지네각시 설화’의 남성 제보자 정보

순서	제목	제보자	제보 일시	지역	성별	나이	생년	거주 이력/생업/교육 여부/배우자 및 자녀/기타 제보자 정보	서사/제보자 수록
1	구렁이와 지네의 싸움	강○○	1984	경남 하동군	남	80	1905	도일(28세)하여 약 10년 거주, 40세 귀향/교육받은 적 없음, 한글해독 능력 없음/장남 교통사고로 잃음/제보자 내외 거주	8-14, 235-236/210
2	천심에 의한 보은	강○○	1981	강원 양양	남	66	1916	대대로 거주/농사/3남(첫째 교감, 둘째 농사, 셋째 축구선수 전 청소년 대표)/의리와 보은을 강조하는 도덕관	2-4, 746-752/601
3	구렁이와 지네의 싸움	고○○	1980	경남 거창군	남	55	1926	젊을 적 이 집 저 집 전전하며 노동일로 생활/정직 성실한 덕분에 현재는 부유	8-6, 98-101/22
4	천년 묵은 지네각시	김○○	1985	전북 정읍군	남	69	1917	7세에 동일군 내 이주/유교문화의 중심지로 관아와 향교가 있던 곳에 거주/서당(소학까지)/2남 7녀/20세 전후 사랑방을 출입하면서 이야기 책 낭송/대부분 이야기 사랑방 어른들에게 들음	5-6, 229-232/10-11
5	지네 덕으로 부자 된 이야기 (1)	김○○	1982	경북 군위군	남	58	1925	농사(넉넉하지 않음)/교육받은 적 없음/한문, 한글 조금/2남 5녀/순진하고 머리 명석/선친(한학)과 그의 친구들로부터 들음	7-11, 368-369/262
6	지네와	김○○	1982	경기	남	78	1905	7대째 동일미를 거주/4대 한집안	1-8, 324-327/

	이무기			웅진군			거주/교육받은 적 없음/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로 여러 번 표창	291-292	
7	여인으로 변신한 미꾸라지의 득천	김○○	1981	경북 안동	남	73	1909	반촌에 누대로 살아온 안동김씨 토박이/농사일/한문 익힘/이야기 잘 하는 분으로 알려짐	7-9, 419-426/ 400-401
8	뱀과 지네의 득천 싸움	김○○	1984	전남 화순군	남	71	1914	5년 전 근교에서 이주/궁핍하나 아들과 함께 살아 다복/제보 당시 노인 회관 총무, 농사/서당에 다녔음/술선수범	6-11, 385-390/ 260-261
9	구렁이 색시	김○○	1979	경기 여주군	남	67	1913	21세 때 경기도 안성에서 이주/농업/용인에서 이야기 들음	1-2, 490-492/ 462
10	구렁이의 은혜로 부자 된 사람	김○○	1982	경북 군위군	남	66	1917	24세에 도일하여 철공업에 종사/28세 귀향/논, 밭이 다수, 과수원 경영으로 넉넉한 생활/보통학교 2년, 한학 3년/결혼(13세)/5남 3녀, 사남과 생활/젊을 때 사랑방 또는 친우들에게서 들음	7-11, 646-655/ 643
11	지네각시	김○○	1985	전북 정읍군	남	69	1917	80년 전 아버지 때부터 거주/농업으로 생계/중교나 학력 없음/2남 5녀	5-5, 585-587/ 577
12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	김○○	1981	경기 안성군	남	65	1917	외지에 나간 경험 거의 없음/농업/교육받지 못함	1-6, 416-421/ 414-415
13	지성을 다해 사람을 도운 지네	김○○	1981	강원 양양군	남	72	1910	일찍이 충남에서 이주/김해김씨/오색을 대표하는 이야기꾼/정직하고 곧은 사람은 희망이 있고, 자신의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	2-5, 276-282/ 210-211
14	천년 묵은 여우와 의리를 지키는 남자	박○○	1979	경북 월성군	남	73	1907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야 하며,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함/선대까지는 글을 잘하여서 어릴 때 집안에 머물던 과객이 많았으며, 스스로는 글을 잘하지 못하여도 글 잘하는 주인공이 많음	7-2, 104-114/ 24-25
15	가난한 머슴과 천년 묵은 지네	박○○	1983	대구 북구	남	65	1919	서울이 고향, 여러 곳을 전전하다 20년 전 대구로 이주/사람은 자기 본심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 교훈적 이야기를 주로 구술	7-13, 482-489/ 45
16	여자가 된 지렁이	백○○	1980	충남 당진군	남	23	1958	영업용 택시 기사/원래 어느 절에 관한 전설/고등학교 선생님에게서 들음	4-1, 473-483/ 470
17	지네 덕으로	사○○	1982	경북 군위군	남	83	1900	본동 출생/논, 밭 농사, 어려운 생활/결혼(23세)/2남 2녀	7-11, 373-376/

	부자 된 이야기 (2)								263-264
18	여자로 변신한 들지네의 죽음	신○○	1981	경북 안동군	남	65	1917	누대로 거주, 해방 1년 전에 만주에서 1년간 있다가 귀향/농사일/훈장에게서 한문 습득/한시 작자/이야기 솜씨 대단/ 풍수 설화를 가장 많이 구술함, 성에 관한 이야기, 남사고, 방학중, 대원군, 사명당, 서산대사, 박문수 등 인물의 장편설화 제공/우스운 이야기도 함	7-9, 839-843/ 808-809
19	천년 묵은 지네와 짚신 장수	신○○	1981	경기 강화군	남	57	1925	조상이 거주한 지 200년(7대 이상 거주)/농사/역학에 조예가 있음/이야기는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고 생각	1-7, 516-520/ 394-395
20	둔갑한 지네	안○○	1984	전남 승주군	남	66	1919	농사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음	6-4, 420-427/ 360
21	지네와 산 사람 (1)	안○○	1982	전북 옥구군	남	56	1927	평생 동일마을 거주/평생 농사일, 제보 당시 남의 집 품일/어렸을 때 한문 조금 읽은 게 전부이며, 교육 받은 적 없음/대부분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들음/아버지와 사이가 가까운 듯함/구술력이 좋아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함	5-4, 622-627/ 584
22	구렁이의 도움	유○○	1981	충북 아산군	남	69	1913	평생 거주/어려서부터 농사/학교나 서당 다닌 일 없음/순수 민담을 윤색해서 논리를 정비하고 장편으로 이야기함/침착하며, 전형적인 이야기꾼	4-3, 275-292/ 255-256
23	여인으로 변신한 지네	이○○	1980	경북 영덕군	남	71	1910	14세에 고향을 떠나 객지를 돌아다님, 일제강점기 남양군도에 징용가서 알루미늄 공장에 3년 반 정도 있음, 귀향하지 않고 부산에서 노동일을 오랫동안 함, 많이 돌아다닌 것을 강조/15년 전쯤에 귀향/제보 당시 순수 농사지음/제보자 내외만 거주/객지에서 들은 이야기	7-6, 302-305/ 265-266
24	여자로 변한 지네	이○○	1980	경북 영덕군	남	70	1911	한국전쟁의 혼란을 피해 주왕산에서 4년간 승려생활/영천 이씨/한학을 했으며, 훈장 경력 있음/자식과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으며, 안정적 생활/학식이 높고 조리정연, 주민들로부터 존경받음/ 마을 유지/	7-6, 380-384/ 267-268

							침착, 차분/설화의 허구성을 강조하고, 이야기가 지닌 교훈성을 덧붙임/허황된 이야기라며 망설이다가 이야기 시작/과거 불교에 관계된 것을 부끄러워하였으며,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함		
25	가난한 선비와 지네	이○○	1981	경북 상주군	남	62	1920	경주이씨 7대째 마을 거주/평생 농사/서당, 한학(6-7년)/3남 5녀/노모, 처와 함께 거주/막내아들(국문학 전공)의 제보/인물전설, 일반담, 동물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설화 보유/진담과 허담을 구별하고, 허담을 무시하지 않음/진담의 고답성을 이해하며 유학에 젖지 않음/구연기법 탁월, 표정·억양 변화 다양, 도취하여 이야기함	7-8, 715-722/ 641-642
26	김동이와 지네각시	이○○	1980	경남 진양군	남	68	1913	없음	8-4, 503-522
27	정직한 사람과 변신한 지네	이○○	1982	충남 부여군	남	82	1901	토박이/선대로부터 상업/고대소설 읽은 경험 있음	4-5, 665/648
28	제 복은 제가 지고 있다	이○○	1980	충북 청주시	남	50	1928	14세에 기생 창을 흥내 내고, 기출하여 한성권번에 들어가기도 함. 후에 농악에 취미를 가지고 장구 배움/젊어서는 쌀장사, 군에서 사 진술을 배워 제보 당시 사진관 운영/제보 당시 지방도시 농악대 장구재비, 국악협회 간부로 활약/집안이 완고하여 서당에서 한문공부/신명 많은 성격	3-2, 121-129/ 17
29	지네를 만나 잘 살게 된 이야기	이○○	1980	경남 거창군	남	57	1924	젊었을 적 함경도, 평안도, 경상도 등 객지를 돌아다니며 노동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고향에 돌아와 안착/호탕한 성격, 씨름판에도 돌아다님/교육받은 적 없으나 객지생활 경험으로 유식한 문자 많이 사 용/기억력, 구변 뛰어남	8-5, 587-593/ 553-554
30	용이 된 색시	이○○	1980	경남 거창군	남	57	1924	젊었을 적 함경도, 평안도, 경상도 등 객지를 돌아다니며 노동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고향에 돌아와 안착/호탕한 성격, 씨름판에도 돌아다님/교육받은 적 없으나 객지생활 경험으로 유식한 문자 많이 사 용/기억력, 구변 뛰어남	8-5, 672-674/ 553-554

31	지네와 지령이	이○○	1982	전북 군산시	남	76	1907	30-40대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들은 이야기 많음/21세부터 노동 일로 생계/ 학교나 서당은 나가본 일이 없어도 논리정연, 한자어 구사/아들 내외, 손녀와 같이 삶/조사자보다는 청중들을 더 의식하며 자랑스러운 표정 지음/지네를 태우면 연기가 위로, 지령이를 태우면 연기가 아래로 향한다고 덧붙임	5-4, 237-241/ 22-23
32	구령이와 이시미의 용 되기	이○○	1983	강원 횡성군	남	79	1905	본관은 전주, 30세쯤에 전라도 화순, 그 후 평양 원산 등을 떠돌다가 해방 후 강원도에 거주/ 소학교,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손은 서울에 있으며, 혼자 거주/서울에서 이야기 내기를 해서 상을 탔다고 함	2-7, 517-524/ 511-512
33	저승에 못하고 지네가 된 여인	이○○	1981	전북 부안군	남	71	1911	15세에 사랑방에서 들음(그 밖의 정보 없음)	5-3, 381-384/ 381
34	용이 된 이무기	이○○	1979	충남 당진군	남	59	1921	지식들은 분기하고 소박한 생활/한문어귀 섞어 쓰며, 표정 없이 말함/어려서부터 들어온 이야기/보수적 · 교훈적 태도	4-1, 236-239/ 206
35	지네의 승천	임○○	1980	경남 거창군	남	72	1909	본동에서 출생, 거주/서당/첫 부인과 사별, 재혼하여 3남 1녀/큰아들이 대구에서 일하고 있으나, 도움이 되지 못해 제보자가 직접 농사, 품을 팔아 생활/고집이 세며, 남에게 지기를 싫어함/이야기를 잘하지만 농번기라 많이 하기를 거절함	8-6, 70-74/ 25
36	천상에서 귀양 온 지네 여자가 효자를 의지하다	임○○	1979	전북 남원군	남	75	1905	어려서부터 동일 고장에 계속 거주/부락 유지/자제를 분가, 부부가 같이 거주/지는 창균(昌均), 호는 송석(松石)/해방 후 정미소업도 하여 전기를 끌어들임/조기 구보와 축구로 체력 단련	5-1, 151-155/ 105-106
37	김정승 이야기	전○○	1980	강원 삼척	남	72	1909	없음	2-3, 372-379
38	반람박씨 시조와 지네	정○○	1984	경남 하동군	남	75	1910	고향에 평생 거주/면서기 23년/서당에서 한학, 보통학교 졸업/저녁은 모두 객지에서 생활/제보자 내외 거주/유능한 제보자/오늘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태도 가짐	8-14, 700-702

39	지네와 산사람 (2)	조○○	1982	전북 옥구군	남	56	1927	징용에 끌려가 일본에서 3년 거주/ 그 외 평생 한마을에서 농사일에 전념/천자문, 통감 3권까지 공부, 기억력 뛰어남/이야기 잘하는 사람으로 동네에 알려짐/어려서 동네 사랑방에서 들음	5-4, 778-788/ 585-586
40	지네와 구렁이	조○○	1980	경기 남양주군	남	63	1918	부부가 함께 농사일/ 부인이 부추겨 여러 가지 이야기해줌/부인이 재미있다고 칭찬 이야기	1-4, 1021-1025/ 999-100
41	지네 편을 들어 구렁이를 죽인 선비	채○○	1981	전북 부안군	남	56	1926	고장 태생이며, 여행을 자주 함/세상 살아가면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말하기 즐겁/사랑방에서 인기/풍수, 효도, 역사인물에 대한 소견을 정확히 곁들임/일제강점기 이야기도 고담같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함/책 보고 남과 공부되는 이야기 듣기를 즐겁/7세 때 조부에게 들음	5-3, 667-671/ 545
42	천년 묵은 여우와 팔백이	최○○	1983	경북 대구시	남	81	1903	토박이, 3년 전 인근으로 이주/3남매	7-13, 639-645/ 51-52
43	지네처	최○○	1980	경기 남양주	남	81	1900	출생 후 동마을을 계속 거주	1-4, 886-887/ 780
44	민경들의 유래	최○○	1981	충남 보령군	남	60	1922	섬에서 여러 대를 나고 있는 토박이/보통학교 졸, 중학교 중퇴/독혼장을 모시면서 한문공부/부모가 기대를 했으나, 시속을 따르지 못해 결국 부응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늑막한 환경에서 성장/지술, 풍수에 관심/대부분 10세 무렵 서당 훈장에게서 들은 이야기/견문이 넓지 않음	4-4, 759-760/ 516-517

‘지네각시 설화’의 남성 제보자들은 1900-1928년 사이에 출생하였으며, 16번 제보자(제보 당시 23세)만 1958년생이다. 제보 당시 이들의 나이는 50-83세 사이였다. 남성 제보자 대부분이 청·장년기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여러 면에서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남성 제보자의 거주 이력부터 살펴본다. 거주 이력 정보가 노출된 제보자는 43명¹⁰⁾ 중 29명이다. 이들 29명 중에서 객지생활 경험자는 1,

9, 10, 13, 15, 18, 23, 24, 28, 29, 31, 32, 39, 41번 제보자로 모두 14명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객지생활은 자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에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23번 제보자는 남양군도에 강제 징용당한 경험이 있으며, 39번 제보자는 징용으로 일본에 3년간 거주하였다. 일제강점기 또는 한국전쟁기의 일정 기간 동안 고향을 떠난 경우도 관찰된다. 18번 제보자는 해방 1년 전쯤 만주로 떠나 해방 후 귀향하였으며, 24번 제보자는 한국전쟁의 혼란을 피하여 4년간 승려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32번 제보자 역시 해방 전에는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해방 후 귀향하여 자리를 잡았다.

자발적인 객지생활은 주로 경제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번 제보자는 경제적 이유로 28세에 도일(渡日)하여 약 10년간 거주하였다. 10번 제보자 역시 24세에 도일하여 철공업에 종사하다가 28세에 귀향하였다. 15, 23, 29, 31, 32번 제보자도 젊은 시절 객지를 돌아다니며 노동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등 경제적 이유로 타지생활을 경험하였다. 15번 제보자는 서울이 고향이나 여러 곳을 전전하다 20년 전에 대구로 이주하였다. 23번 제보자는 14세에 고향을 떠나 객지를 돌아다니다 일제강점기에 징용으로 남양군도에 갔으며, 그 후 부산에서 노동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15년 전에 귀향하였다고 한다. 29번 제보자 역시 젊었을 적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동일을 하다가 나이 들어 고향에 안착하였다고 한다. 31번 제보자도 21세부터 노동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30-40대에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한다. 이들의 객지생활은 비교적 청·장년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개 귀향으로 끝을 맺는다.

일제강점기에는 농촌이 수탈당하였고 한국전쟁기에는 남아 있던 산업 시설이 파괴됨에 따라, 많은 한국인들의 경제적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지네각시 설화’의 남성 제보자들은 이러한 시기에 객지생활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농업 이외의 생계수단을 찾고자 고향을 떠났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 노동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7, 11, 12, 17, 18, 19, 21, 22, 25, 27, 35, 36, 38, 42, 44번 등 15명의 제보자는 거의 평생 동일마을에서 생활하였다. 특히, 7번 제보자는 누대

10) 남성 29번과 30번 각편은 같은 제보자에 의해 구술된 것이다.

로 살아온 안동김씨이며, 11번 제보자는 80년 전 아버지 대부터 거주하였다. 18번 제보자 역시 누대로 살아온 경우이며, 19번 제보자도 7대 이상 거주하고 있다. 25번 제보자도 경주이씨로 7대째 거주해오고 있으며, 44번 제보자의 집안 역시 여러 대를 고향인 섬에서 보냈다.

대부분의 남성 제보자는 농사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거주지는 농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2, 3, 5, 7, 8, 9, 10, 12, 17, 18, 19, 20, 21, 22, 23, 24, 35, 39, 40번(총 19명)의 남성 제보자는 제보 당시 50-80대의 고령인데도 농사일로 생업을 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남성 제보자 중 경제적 상태에 대한 정보는 모두 11명에게서 노출되고 있다. 3번(젊을 적 이집 저집 전전하며 노동일로 생활한 덕에 현재 부유), 10번(논, 밭 다수, 과수원 경영으로 넉넉한 생활), 36번(부락 유지) 등 3명의 제보자를 제외하고는, 5번(농사, 넉넉하지 않은 생활), 8번(궁핍한 생활), 16번(영업용 택시), 17번(농사, 어려운 생활), 21번(제보 당시 남의 집 품일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 23번(노동일을 오래하였으며, 손수 농사를 지어 생계 유지), 34번(소박한 생활), 35번(농사짓거나 품을 팔아서 생활) 등은 제보 당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

교육과 문맹 여부에 대한 정보가 노출된 경우는 모두 23명이다. 근대식 학교 교육을 받은 남성 제보자는 10번(보통학교 2년, 한학 3년), 16번(제보 당시 23세, 고등학교 졸, 영업용 택시 운전), 32번(소학교, 고등보통학교 졸업), 38번(보통학교 졸업, 면서기), 44번(보통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등 총 5명이다. 근대식 교육을 받은 이들 중에서 32번 제보자만 제법 학식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전근대식 한문 교육을 받은 남성 제보자는 4번(서당에서 소학까지), 7, 10, 14번(스스로 글을 잘하지 못한다고 밝힘), 18번(서당, 한시 자작), 24번(한학을 했으며 훈장생활을 함), 25번(서당, 한학 6-7년간), 28번(제보 당시 청주농악대 장구재비, 국악협회 간부), 35, 38, 39번(천자문, 통감 3권), 44번(독훈장을 뒀, 견문이 넓지 않음) 등이다. 서당에서 한자 교육을 받은 이들은 18, 24번을 제외하고는 한문학에 대한 소양이 그리 깊어 보이지 않는다. 10, 38, 44번 제보자는 근대식 교육과 전근대식 교육을 동시에 받았으며, 따라서 총 14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

1, 5, 11, 12, 21, 22, 29, 31번 등 8명의 제보자는 전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언급했다. 5, 7, 21번 제보자는 독학으로 글을 이는 경우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17명의 제보자가 한글 또는 한문을 알고 있으며, 최소 약 40% 정도가 글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이들 14명은 학문적 소양이 그리 깊지 않으며,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¹¹⁾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또한 18번(한문 자작시 짓기도 함), 38번(23년 동안 면서기), 24번(훈장 경력이 있음)을 제외하고는 문자문화의 영향력에 깊이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 및 가족이력은 다음과 같다. 2번(3남-첫째 교감, 둘째 농사, 셋째 축구선수), 4번(2남 7녀), 5번(2남 5녀), 6번(4대 한집안 거주), 8번(궁핍하나 아들과 함께 살아 다복), 10번(13세 결혼, 5남 3녀), 11번(2남 5녀), 17번(23세 결혼, 2남 2녀), 24번(자식과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음), 25번(3남 5녀, 노모와 처와 함께 거주), 31번(아들 내외, 손녀와 같이 거주), 35번(첫 부인과 사별하고 재혼하여 3남 1녀) 등 12명의 이력에서 자녀의 수(3-9명)가 많으며, 3-4대가 한집에서 거주하는 등 대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분가하는 경우도 종종 관찰되었다. 1번(제보자 내외 거주), 23번(제보자 내외만 거주), 32번(자손은 서울에 있으며, 혼자 거주), 34번(자식들은 분가), 36번(자제들 분가, 부부가 거주), 38번(자녀는 모두 객지, 제보자 내외 거주) 등의 정보에서, 1960-1980년대에 한국이 산업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자녀 세대들이 도시로 나가 터전을 마련하는 등의 변화상도 엿볼 수 있다.

표2- '지네각시 설화'의 여성 제보자 특징

순서	제목	제보자	제보 일시	지역	성별	나이	생년	거주 이력/교육 여부/배우자 및 자녀/기타 제보자 정보	수록
1	이무기의 보은	길○○	1981	경북 상주군	여	73	1909	이리저리 떠돌다 33세에 단수를 배워 참봉이 됨, 현재 마을에 정착한 지 40년/17세에 결혼했으나 남편과 곧 사별/사고로 인명, 어릴 때 심한 병을 앓아 불구/단수 치면서 혼자 거주/이야기는 주로 고향인 충주 제천에서 듣고 익힘	7-8, 828-833/644-645

11) 교육을 받은 14명의 제보자 중 농업에 종사한다고 직접 언급한 경우는 7, 10, 18, 24, 25, 35, 39번 등 7명이다.

2	지네 이야기	김○○	1981	경기 강화군	여	81	1901	서울 출생/한문(상당한 실력)/결혼(15세)/시집은 후에 고생 많이 함/고된 시집살이로 인한 시 지작/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영감을 돌봄	1-7, 345-346/ 251-252
3	김활량과 지네각시	김○○	1982	경남 의령군	여	63	1920	가무 배우다가 14세에 일본 가서 19세에 결혼, 판소리, 장구, 춤 가르치는 강습을 하기도 하며 악극단도 따라다님/현재 혼자 셋방을 얻어 생활/퇴기인 듯함/구변이 좋아 흥미롭게 이야기함	8-10, 454-458/ 327-328
4	두꺼비와 지네의 등천시험	목○○	1983	강원 횡성군	여	63	1921	16세에 결혼/남편(국민학교 졸, 서당, 한학)교육을 받지 못해 멸시당한 적 있음/남편이 남양군도에 갔을 때 두고 온 여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에 약이 올라, 제보자 20세에 국문 독학/어렸을 때 들음/독살한 기독교 신자	2-6, 620-624/ 552-553
5	가난뱅이와 독사의 득천	박○○	1982	경남 김해군	여	61	1922	7년 전 병고에 시달리던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 생활(아들과 함께 살 계획), 오랜 도시생활/아들 따라 부산 이주하여 7년 거주 후에 다시 현 거주지로 돌아옴/제보 당시 친정집에 휴식 차 방문/학교를 다니거나 교육 받은 적 없으나 한글해독 가능/17세에 결혼/2남 2녀, 이들은 모두 결혼하여 부산에서 각자생활, 딸들도 모두 출가/놀이판을 돌아다니면서 들음	8-9, 747-753/ 536-537
6	학자 양반에게 굴러온 북	배○○	1979	경북 성주군	여	64	1916	(제보자가 거주하는 마을 정보만 기록됨) 노인층은 남녀를 불문하고 한학에 조예가 깊음/노년층 부녀들은 『가야해인곡집』이란 내방 가사집을 제본해서 간직하고 있으며 제보 당시에도 가사를 짓고 낭송하기도 함/농업이 주산업	7-5, 30-34/ 15
7	이무기 용 퇴기	성○○	1980	경남 진양군	여	66	1915	결혼한 지 2년 뒤 일본에 가서 32세까지 거주/국문 해독/17세에 결혼/일본에서 귀국한 지 6년 만에 사별/현재 부유하게 살고 있는 장남과 함께 거주/나머지 자녀(모두 6남매) 각자 거주/이야기와 노래를 잘함/친정 어머니에게서 배움	8-3, 344-348/ 295-296
8	용이 된 구렁이	손○○	1980	충남 당진군	여	82	1899	18세에 시집을 와서 동일마을 거주/아들 5형제를 두었으나 모두 앓음/경쟁이로 알려져 있고 수양딸로 삼은 여자와 둘이 살고 있음/동네의 여	4-1, 346-348/ 335-336

								자 중 나이가 가장 많음/생활이 어렵고 마음이 늘 편치 않음/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음	
9	용과 여우의 둔갑	양○○	1979	전북 남원군	여	63	1917	없음	5-1, 707-709
10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승천한 구렁이	유○○	1982	전남 장성군	여	54	1929	어린 시절 부유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제보자 집에 머물렀으며, 그들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들음. 또한 소설책 등을 많이 읽어서 설화를 많이 알고 있음/제보 당시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농사지으면서 노인회관에 거주/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진다고 생각/10세에 할머니에게서 들음	6-8, 501-511/ 345-356
11	구렁이의 보은	윤○○	1980	충남 대덕군	여	70	1911	총주가 고향/이야기책을 겨우 해독할 만한 수준/3남 1녀/두 아들네를 왕래하며 지냄/착하고 단순한 성격/8-9세 때 일가 할머니들을 즐라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였으며 기억력이 좋음	4-2, 543-545/ 505-506
12	지네의 변신	윤○○	1980	충남 대덕군	여	70	1911	총주가 고향/이야기책을 겨우 해독할 만한 수준/3남 1녀/두 아들네를 왕래하며 지냄/착하고 단순한 성격/8-9세 때 일가 할머니들을 즐라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였으며 기억력이 좋음	4-2, 548/ 505-506
13	여우와 곰벵이의 변신	윤○○	1980	충남 대덕군	여	70	1911	총주가 고향/이야기책을 겨우 해독할 만한 수준/3남 1녀/두 아들네를 왕래하며 지냄/착하고 단순한 성격/8-9세 때 일가 할머니들을 즐라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였으며 기억력이 좋음	4-2, 545-547/ 505-506
14	공덕 쌓기	이○○	1984	전남 화순군	여	65	1920	17세에 결혼/한국전쟁으로 남편이 반동으로 몰려 죽게 되자 딸 하나를 길러 시집보내고 딸부부와 같이 거주/남편의 죽음 이후,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됨/학자 집안의 자부심과 사람들에게 대한 경계심으로 주변의 아주머니들이 함부로 농담도 하지 못함/손자에 대한 편애 있음/11세에 아버지에게서 들음	6-11, 619-622/ 494-495
15	미녀로 둔갑한 지네의 승천	이○○	1982	경북 봉화군	여	68	1915	없음	7-10, 602-607

16	죽음을 무릅쓰고 은혜 깊은 사람	장○○	1982	충남 부여군	여	89	1894	17세에 옥산으로 시집감, 23세에 고향으로 이사/졸근 농사/친근하고 쾌활함/인륜과 도덕 강조/이야기를 부연설명하거나 훈계적 논평을 가 하는 데 관심/다복하고 이채로운 어 름으로 통함	4-5, 483-487/ 396-397
17	백여우와 지네	정○○	1984	경남 하동군	여	71	1914	평생 동일마을 거주/16세에 마을사 람과 결혼/교육받은 적 없음, 문맹/ 설화와 민요 모두 유창/친정어머니 에게 들음	8-14, 767-771/ 748-749
18	구렁이의 종매로 지네와 결혼한 이야기	조○○	1980	경남 거창군	여	85	1896	쌍둥이로 출생/14세에 시집/외동아 들 둘 → 21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소식 끊김/제보 당시 며느리, 손부, 증손자들과 거주/외동 손자 교직에 있다가 대구에서 사업/집에는 여자 들만 거주/차분한 성격, 인고를 겪어 서 화내는 일 없으며, 남에게 해가 되는 일 하지 않음	8-5, 1107-1110/ 962-963
19	사람이 된 지네	조○○	1980	경북 영덕군	여	72	1909	19세에 13세 연상인 남편과 결혼/ 남편을 따라 일본으로 갔으나 고생 만 하다가 남편이 병을 얻자 해방되 던 해에 귀국, 각지 전전하다가 수년 뒤에 귀향/술을 좋아하고 집안을 돌 보지 않은 부친 덕에 모친이 고생했 으며, 모친을 도와 13세부터 베를 짚/병든 남편 대신에 집안을 꾸려갔 으며, 전처소생인 맏아들과 며느리 가 같이 거주/남을 도와주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생각/친정어머니에 게 들음/불우한 과거를 소상히 이야 기하여 주위 사람들이 처음 듣는다 고 놀람	7-6, 284-288/ 262-265
20	지네와 구렁이	주○○	1980	경남 거창군	여	76	1905	15세에 결혼/1남 2녀/성격이 온화 하고 차분/설화, 민요 두루 잘함/기 역력 좋음/증조모와 고모에게서 설 화, 민요 배움, 6세 때 거제도에서 온 사람에게서 시집살이 노래 배움 경주최씨/부부만이 농사/18세에 결 혼/3남 3녀/막내 제외 모두 출가시 킴/어릴 때 이웃 어른들이나 오빠에 게서 들음	8-5, 119-125/ 28
21	사람 은혜로 독특한 독사	최○○	1982	경북 군위군	여	63	1920	경주최씨/부부만이 농사/18세에 결 혼/3남 3녀/막내 제외 모두 출가시 킴/어릴 때 이웃 어른들이나 오빠에 게서 들음	7-12, 157-162/ 20-21

21개 각편의 여성 제보자는 모두 19명¹²⁾으로 제보 당시 나이는 54-85세 사이이며, 주로 60-70대가 많다. 출생연도는 1894-1929년이며, 14-19세

사이에 결혼하였다.

여성 제보자들의 거주 이력은 5명에게서 나타난다. 1번 제보자는 남편과 사별 후 떠돌아다녔다. 3번 제보자는 가무를 배우다가 14세에 일본으로 가서 19세에 결혼하였다고 하며, 귀국한 후에도 춤 등을 가르치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다. 5번 제보자는 사별 후 아들을 따라 부산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7번 제보자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일본에 가서 약 15년간 거주하였다고 한다. 19번 제보자도 남편을 따라 일본에 갔다가 해방 후에 귀국하여 객지를 전전하다가 수년 뒤에 귀향했다고 한다. 여성 제보자들의 거주 이력은 남편의 존재유무와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 5번 제보자는 남편의 유무에 따라 이주 경험이 나타나고 있으며, 7, 19번 제보자의 경우 농업 이외에 직업을 찾거나 했던 남편의 경제적 결정에 따라 이주 경험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여성 제보자들의 자녀 정보가 나타난 경우는 모두 8명이다. 5번(2남 2녀), 7번(6남매), 8번(5형제), 11번(3남 1녀), 20번(1남 2녀), 21번(3남 3녀)이며, 14번(외동딸), 18번(외동아들)의 경우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여 각각 한 명의 자녀를 두었다. 14, 18번 제보자를 제외하고는 최하 4명에서 최대 6명까지 자녀를 두었다.

전반적으로 여성 제보자들의 삶은,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남편과 아들의 존재 유무, 또는 그들과의 관계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번 제보자는 사별 후에 안맹으로 떠돌다가 단수를 배워 이를 생계수단으로 한 마을에 자리 잡았다. 2번 제보자는 시집살이를 심하게 겪었으며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남편을 돌보느라 고생을 많이 하였다. 4번 제보자는 남편이 징용 당시 다른 여자를 보아서 마음고생을 하였다. 5번 제보자는 제보 당시 61세였는데, 남편이 7년 전 병고에 시달리다 죽은 후 아들을 따라 부산으로 이주하는 등의 객지생활을 경험하였다. 7번 제보자는 40세 즈음에 남편과 사별하고 장남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장남이 부유하여 별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었다. 8번 제보자는 남편과 아들 5형제를 모두 잃고 수양딸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11번 제보자는 두 아들 집을 왕래하면서 살고 있었다. 14번 제보자는 남편이 한국전쟁 당시 반동으로 몰려 죽게 되자 외동딸을

12) 11, 12, 13번 각편의 제보자는 동일하다.

홀로 키웠어야 했으며, 제보 당시 외동딸 부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8번 제보자는 21세에 일본으로 간 외동아들과 연락이 끊긴 채 살아왔다. 제보 당시 제보자는 며느리, 손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9번 제보자는 술을 좋아한 부친 때문에 고생하다가, 19세에 13세 연상인 남편과 결혼하였다. 그러나 재취 자리여서 전처소생의 남매를 키웠으며, 남편이 병을 얻자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고생을 하였다.

이상 ‘지네각시 설화’의 남성과 여성 제보자별 특성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객지생활도 경험하면서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노력해 왔으며, 남성이 ‘가장’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여성들의 삶에도 변화가 있었음이 관찰된다. ‘지네각시 설화’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을 부양할 수 없었던 남성의 이야기이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격변기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했던 제보자들의 인생과 조응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지네각시 설화’의 여러 각편에 나타나는 제보자들의 경험세계와 상흔을 아래 III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지네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동일시 양상

문학치료학에서 말하는 작품서사란 작품 내면의 서사이며 자기서사란 인생 내면의 서사로서, 작품서사와 자기서사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¹³⁾ II장에서 언급한 남성과 여성 제보자의 인생 이야기가 자기서사라면, ‘지네각시 설화’의 서사 줄거리는 작품서사¹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네각시 설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¹⁵⁾를 참고하여

13) 정운채, 앞의 논문(2008), 250쪽.

14) 정운채는 작품서사가 표현과 구성보다는 줄거리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위의 논문, 251쪽.

15) 김정석, 앞의 논문, 173-174쪽; 이지영, 앞의 논문, 92쪽; 정운채, 앞의 논문(2006), 163-165쪽.

‘지네각시 설화’의 서사단락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자가 가난을 비판하여 죽으러 산으로 간다.
- ② 남자가 죽으려는 순간, 예쁜 각시(지네각시)가 나타나 함께 살자고 한다.
- ③ 남자는 예쁜 각시(지네각시)와 살면서 보살핌을 받는다.
- ④ 어느 날 남자는 두고 온 가족들이 궁금하여, 각시(지네각시)의 허락을 받고 찾아간다. 남자는 가족들이 각시(지네각시)의 도움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 ④ 각시(지네각시)는 남자에게 돈을 주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도록 한다.
- ⑤ 남자가 각시(지네각시)의 은혜에 감격하며 돌아가던 중에 지네의 경쟁자인 구렁이가 죽은 부친(부친의 친구, 조부, 조부의 친구, 삼촌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 각시(지네각시)의 정체를 밝히며, 담배 피운 침(연기) 혹은 밥알 씹은 침을 뱉어 죽이라고 한다.
- ⑥ 남자는 몰래 지네각시의 정체를 확인하지만, 보은하려는 마음에 차마 죽이지 못한다.
- ⑦ 지네각시는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부와 번영을 약속하며 등천하고, 남자는 부를 누리며 살게 된다.
- ⑦ 지네각시는 남자의 마음을 확인한 후 여자로 변하고, 남자와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산다.

7개의 서사단락에서 특히 ①, ⑦번 단락은 각편에 따라 차이가 많다. ①번 단락은 서사의 남주인공이 등장하는 부분이며, ⑦번 단락은 서사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특히 ①단락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는 가난한 남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그 구체적 형상은 각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인공의 형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구술자의 경험세계와 관련이 있다. 주인공에 대한 감정이입은 구술자 자신의 경험세계와 일치되는 부분이 있을 때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으며, 뛰어난 구술자일수록 주인공과 일체화하는 경향이 있다.¹⁶⁾ III장에서는 남녀 제보자의 동일시 양상을 통해 ‘지네각시 설화’의 작품서사와 제보자의 자기서사가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지네각시 설화’ 65편의 각편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형상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① 가난하여 처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 ② 가난하여 결혼할 수 없는 총각, ③ 한량, ④

16) 월터 J. 옹 저음, 이기우·임명진 옮김, 앞의 책, 76-77쪽.

표3- '지네각시 설화'의 남녀 제보자에 따른 남주인공 유형

유형		남성 제보자(44편)		여성 제보자(21편)	
① 가난하여 처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	①-1 가난하고 처자식이 많은 가장	20 (45%)	19 1, 2, 5, 6, 10, 11, 15, 18, 20, 21, 25, 27, 29, 32, 33, 34, 35, 39, 40	10 (47.6%)	9 5, 7, 8, 11, 13, 14, 16, 17, 19
	①-2 가난하고 처자식이 많지만, 선량하여 남을 돕고 사는 가장		1 19		1 1
② 가난하여 결혼할 수 없는 총각	②-1 이리저리 떠도는 총각	9 (20.5%)	5 3, 8, 12, 23, 30	1 (4.8%)	1 12
	②-2 머슴 일을 하는 총각		2 13, 44		
	②-3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 총각		2 26, 36		
③ 한량	③-1 가난하지만 한량 노릇을 하거나 게으른 경우	13 (29.5%)	2 4, 9	6 (28.6%)	4 3, 10, 18, 21
	③-2 부자이지만 한량 노릇을 하다 가난해진 경우		10 7, 14, 16, 17, 22, 28, 31, 38, 41, 42		
	③-3 가난하지만 학자인 경우		1 37		2 6, 15
④ 선비		1 (2.8%)	1 24	3 (14.3%)	3 4, 9, 20

과거 보는 선비의 유형이다. ①-③의 유형을 다시 세분화하였다. ①번 유형은 ①-1 가난하고 처자식이 많은 가장, ①-2 가난하고 처자식이 많지만, 선량하여 남을 돕고 사는 가장으로 나누었다. ②번 유형은 ②-1 이리저리 떠도는 총각, ②-2 머슴 일을 하는 총각, ②-3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 총각으로 나누었다. ③번 유형은 ③-1 가난하지만 한량 노릇을 하거나 게으른 경우, ③-2 부자이지만 한량 노릇을 하다 가난해진 경우¹⁷⁾, ③-3 가난하지만 학자인 경우로 나누었다.

표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남성과 여성 제보자에 따른 남주인공의 형상은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남성 제보자의 경우는 '① 가난하여

17) 부잣집 출신으로 과거 준비하러 떠나 놀다가 재산을 탕진한 경우(남성 28편)에는 '④ 과거 보는 선비'가 아닌 '③-2 부자이지만 한량 노릇을 하다 가난해진 경우'로 분류했다.

처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20편) → ③ 한량(13편) → ② 가난하여 결혼할 수 없는 총각(9편) → ④ 선비(1편)'의 순서이다. 여자 제보자의 경우는 ① 가난하여 처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10편) → ③ 한량(6편) → ④ 선비(3편) → ② 가난하여 결혼할 수 없는 총각(1편)'의 순서로 나타난다.

남녀 제보자 모두 ① 가난하여 처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거의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남녀 제보자 모두 지네각시 설화의 '가난하여 처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의 모습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남성 제보자는 ② 가난하여 결혼할 수 없는 총각' 유형이 9편으로 비교적 많이 나타나나, 여성 제보자의 경우 ②번 유형은 1편에 지나지 않는다. ③-2 부자이지만 한량 노릇을 하다 가난해진 경우'는 남성에게는 10편이 나타나나 여성에게는 1편도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④ 과거 보는 선비 유형'은 남성 제보자에게는 1편에 불과하지만, 여성에게는 3편으로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남주인공의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남녀 제보자의 동일시 양상을 구체적으로 관찰해보고자 한다.

1. '가난하여 처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 유형과 동일시 양상

한국의 전통 가족사회에서 '가장'은 아버지이자 동시에 남편,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처자식과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지네각시 설화'의 남주인공은 가난하여 처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남성상을 보여준다. 정운채는 '지네각시 설화'의 남주인공에게서 가난과 생활고로 인한 우울증과 무기력감 등이 나타난다고 본다.¹⁸⁾ 가난하여 처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의 이야기는, 10-30대에 일체강점기와 30-50대에 한국전쟁기를 겪으면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남성 제보자들의 경험세계와 유사점이 있다.

남성 제보자가 구술한 20편의 각편에서는 '가난하여 처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구술성이 뛰어난 5, 11, 18, 21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8) 정운채, 앞의 논문(2006), 163-165쪽.

이왕 시절이 어찌케 간구하니(가난하게) 살던지, 지금인게 참 개도 쌀밥을 냉기지만
선달 그름 정월 초하루라면 굉장한 큰 명절인데, 끄니(끼니) 끓일 것이 간 디
없고 어린아이들은 주르르 많은디, 옆집이서는 떡을 한다 빻을 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디, 훈(헌) 누덕지(누더기) 갑발하고 집구석이라고 들와 보니, 쌀 뒷박이나
어디 구걸이라도 허러 멩기다 빈 몸으로 털썩털썩 와서 보니 우그리고 앉아 있는
그 새끼들을 쳐다보니 어찌케 회심허던가, “하나의 내가 권(주인) 가장된 사람이
이게 무신 짓이고? 내가 차라리 어디 가서 나의 자취를 감춰 가지고 죽어 이
세상을 끝나는 것이……, 눈으로 안본 것만도 못허다. 그저 아무 곡적(곡절)도
없이 지리산 고리당(골짜기) 호랭이라는 것이 제일 사람 잘 잡아 먹는 것이 계비다라.”

(남성 21번, 『5-4』, 622-623/626쪽)

어떤 사람이 외동아들인데 자기 모친은 참 호불어마이고, 그래 어예 아주 참 할
 수 없었어. 살길이 막연한데 자기 아릿대가 하만 나가주고 있고, 암만 생각해도
 본래 살아날 희망이 없어. 그러나 자기 외동아들로 태어나주고 ‘내가 이 죽기되면
 불효를 면치 못하이 죽을 수도 없고.’

[...] 그럴수록 담배를 자꾸 고만 독은 것 피웠부이께네, 죽었부그던. 죽은 뒤에
보이께네 돌지네래. 순전한 돌지네래. 그래가고설랑 그 이튿날 고만 싸 짊어지고
집에 돌아왔다 그는 그런 얘기가 있지.(웃음) 자기 조상이 인제 갈체줬지. 살었어.

(남성 18번, 『7-9』, 839/840쪽)

한 사람이 있드라오 있는디 이 사람이 저 집서 곤궁허게 살어. 가서 강 아들은
많고, 근디 마느래가 안에 나가라고 이렇게 가난헌게 참 벌어먹일래야 벌어먹일
수가 없어 남자가…….

[...] 쉬었다 집이 오년게로 아 부자가 되었거던? “그, 이 일이 어찌냐?” 헌게로,
 “아 각시 하나가, 이쁜 각시 하나가 아 와서 당신이 벌었다고 허드라”고. 그계
 지네여. 그서 이 사람이 참 호구호식허고 살었드라네.

(남성 11번, 『5-5』, 585/587쪽)

예전에 참, 어는 사람이 참 살았는데 이거 마 집도 가난하고, 이 뭐, 식구들하고
참, 여, 믹이살릴라 카이, 도저히 이거 뭐, 참 부모도 있고 이거 살아봐야 뭐,
어데 가야 품팔이를 해 가주 도저히 살 도리는 없고, 야, (청중: 품팔이, 옛날에
그거 돈 몇 푼 줬다고.) 뭐 도저히 벌 가는 없제. 흉년은 다있뿌제 뭐 할 수
없어가주, ‘야 이거 이래 안 되겠다. 내, 이뭐 기발, 내 이거 자식 못 미이고 어린
자식 있제 나 많은 노부모 있제 이리이끼께 이거 벌이 못해, 내가 차라리 고만,
내가 죽었뿌리는 게 뭐 마명하다’ 싫어.

[...] 이래가고고 비개를 보이께네 그기 금덩거리라요. 비개가 아이라.

(남성 5번, 『7-11』, 368/372쪽)

남성 21번 각편은 명절날 아침, 먹을 것이 없자 구걸이라도 하여

자식들을 먹이고자 하나 그것도 여의치 않은 아버지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21번 제보자는 인근에서 구슬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생 농사일과 남의 집 품일을 하였으며 제보 당시에도 56세의 나이로 여전히 남의 집 품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지금인게 참 개도 쌀밥을 냉기지만(지금이니까 그래도 쌀밥을 남기지만)’ 옛날에는 끼니도 잇기가 어려웠다고 하며, 고생스러웠던 옛 시절을 회고하고 있다. 더욱이 21번 제보자는 ‘가장된 사람이 이게 무신 짓이고?’라고 하면서 한탄의 감정을 비치고 있다. 21번 각편에서는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가족을 부양한 제보자의 경험과 감정이 드러난다.

남성 18번 제보자는 한문으로 자작시를 지을 정도로 유학적 소양을 갖추었으며, 효에 대한 남다른 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18번 제보자의 경험과 가치관이 구술한 각편에 반영되고 있다. 18번 각편의 남주인공은 홀어머니의 외동아들로 처와 모친을 부양할 수 없는 처지이며, 18번 제보자는 홀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여 ‘불효자’가 되는 심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말 부분에서도 조상의 도움으로 지내에게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살아났다고 함으로써 ‘조상’의 도움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남성 11번 각편은 ‘자식 많은’ 가정이 가난하고 벌어먹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자, 부인에게 쫓겨났다고 표현하고 있다. 결말에서는 ‘부자가 되었고, ‘호의호식’을 하였다고 표현하여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7명의 자식들을 키웠으며, 제보 당시에도 69세의 나이로 농사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11번 제보자의 개인사가 반영된 듯하다.

남성 5번 제보자는 ‘뽕팔이를 해 가주 도저히 살 도리는 없고’라고 하면서, 가난하여서 ‘어린 자식’과 ‘노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가장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남성 5번 각편의 청중 역시 ‘뽕팔이, 옛날에 그거 돈 몇 푼 쫘다고’ 하며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과거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 남성 5번 제보자는 제보 당시 58세로, 21세에 혼인하여 2남 5녀를 두었다. 남성 5번은 비교적 젊은 축에 드는 제보자로 7명이나 되는 자녀를 부양하느라 고생을 많이 한 듯 보인다. 장남은 인근 도시에서 전업사(電業社)¹⁹⁾를 하고 있어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은 아닌 듯하며, 제보자는 제보 당시에도 농사를 지으면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보자의 경험과 경제적 어려움이 5번 각편에 반영되고 있으며, 결말 부분에는 ‘베개만 한 금덩어리’를 획득한다고 하여 부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고 있다.

‘가난하여 처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의 유형에서 남성 제보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식’과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남주인공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반면, 남주인공의 ‘부인’에 대한 동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난하여 처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의 유형은 여성에게서는 모두 10편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8, 13, 14, 19번 각편을 통해 ‘가난하여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에 대해 공감하는 여성의 경험세계와 상흔을 분석해본다.

총기가 좋았다. 아 저기 하 가난하니께 에이 빌어 먹을 거, 제 자식 벌어서 못 먹이는 거, 죽어나 버린다구.

[...] 남매가 잘 살구 그 처녀가 용뎌서 올라가서 당신이 잘 살도록 전답이구 집이구 마련해 주겠다구. 아 그래서 인자 고향엘 갖는디 잘 살면서 일취월장해서 남매를 거둬 나고 한 십남매를 뒀드랴. 그래서 인제 전답, 전답 몇 섬지기를 해서 효자가 됐유.

(여성 8번, 『4-1』, 346/348쪽)

못 사는디 자식덜은 많구. 꼭 참 밥 달라구 옷 달라구 울구 그러니 그 사람이 워터게 할 수가 읍어서, “아이 당신 그 어디가 빌어 오라”고, 여자가 그러니까. [...] 그래 그래서는 인자 그래 여우하구 살었다. 부자되구 살었다.

(여성 13번, 『4-2』, 545/547쪽)

“내가 사는 것이 너무 복잡헌께, 이 세상 그만 돌러고 저기 왔었소. 바위에서 떨어져 죽을려고.” 그러는디. 그 여자가 그 남자를, “그러중 마십쇼” 하고 따독거리, 즈그 집으로 데려 갔거든. 자기 남편을 삼고 살아.

(여성 14번, 『6-11』, 620쪽)

저 예전에 참 아들을 마이(많이) 나 놓고, 참 가난했어유. 가난했는데, 그 양반이 참 병이 들어가주고 문밖 출입을 못했어유. 못하고 있으이 머 아들을 다섯이 나냈지요. 멀(먹을) 길이 없다. 자꼬 이 미누레가 드리 뵙아대 사람을 양반으로(양반을) 병이 들어 방구서 앓아가 “내 방이품 들이 논거 마 먹고 앉았다”고 하도 즐라싸.

19) 전기 기구 등을 파는 가게.

그래이 병이 들어 있는데 나갈 수 없었던. 죽을 병을 실었는데.
 [...] 그날 저녁에는 주인네 집에 가이 밥이, 손이 와기주고 떨어지고, 두부찌개하고
 지밋물하고 주는거로 그걸 갖다 마 바가치째로 그마 양반한테다가 굴라메쳤지며.
 나락싸도 못끓어다 오는게 그것도 머 싸지며. 그래 가주고 서그름을(서름을) 보이
 머 기가맥케(막혀) '애이눔 우 내가 죽을 수백에 없다' 싶어 마 나섰어.
 [...] 이눔의 각시는 가이까네 그 그 부자집 방아쪼든, 방아 찌가주고 적(저녁)이고
 짜래기 얻어가주고, 얻든 집이(집에) 머심하고 떡 사드래요. 그래 그마 그 각시하고
 쫓부고, 그 엘랑(아이들) 데려와가주고 잘 살았드래요.

(여성 19번, 『7-6』, 284-289쪽)

여성 8번 각편은 '총기가 좋음에도 자식을 제대로 먹일 수 없어 죽으려고 하는 가장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가난한 가장을 동정하고 있다. 여성 8번 제보자는 아들 5형제를 다 잃은 경험이 있으며, 현재 수양딸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 많은 젊은 남성이 죽었기 때문에, 8번 제보자의 아들들도 이때 사망했을 가능성이 많다. 8번 제보자의 구술에서는 자식들을 잃은 상흔이 드러난다. 여성 8번 제보자는 특히 결말 부분에서 '십남매'를 두었다고 언급하였다. 남주인공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 외에 '남매를 거둬' 낳아 '십남매'를 두었으며 효자가 되었다고 서술함으로써, 제보자 스스로 자신의 상흔을 보상받으려 하는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여성 13번 각편에서는 가난에 지친 부인이 돈을 벌어오라며 남편을 내보낸다. 여성 13번 각편에서 나타나는 남주인공의 '부인'은 '꼭 참 밥 달라구 옷 달라구 우'는 자식들을 지켜보면서, 책임감 있는 가장의 모습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다. 여성 13번 제보자는 3남 1녀를 두었으며, 제보 당시 사별하고 두 아들네를 오고 가며 몸을 의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부모와 처자식을 부양하는 남성의 필요성에 대해 제보자가 깊이 인식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결말 부분에서는 남주인공이 오히려 여우각시와 행복하게 사는 것²⁰⁾으로 끝맺음으로써 돈 벌라고 남편을 내보냈던 부인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드러낸다.

20) '지네각시 설화'의 여성 제보자의 경우 '등천하기'(15편, 1, 3, 4, 5, 6, 7, 8, 9, 10, 11, 14, 15, 16, 17, 21번 각편) 결말이 '사람 되기'(5편, 12, 13, 18, 19, 20번 각편) 결말보다 월등히 많다. 여성 제보자들은 지네각시가 사람이 되어 남주인공과 부부가 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나며, 지네각시가 등천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여성 14번 각편은 남주인공이 아닌 ‘지네각시’의 시점을 중심으로 구술되고 있으며, 죽으려는 남주인공을 ‘따독이며’ 살리려는 지네각시의 인자한 모습을 보여준다. 여성 14번 제보자는 한국전쟁 당시 남편이 반동으로 몰려 죽은 후 홀로 외동딸을 양육한 아픔이 있다. 이러한 상흔 때문인지 14번 제보자는 남주인공을 살리려는 ‘지네각시’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가난을 비판하여 죽으려는 가장인 남주인공에 대한 동정심을 보여준다.

여성 19번 각편의 남주인공은 가장으로서 처와 아들 5형제를 부양할 책임이 있지만, 가난과 병고에 지쳐 있다. 남편을 대신하여 남의 집에서 방아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처의 행동은 오히려 악독스럽게 표현된다. 남편에게 남의 곡식을 훔치라고 부추기면서 훔치지 못하는 남편을 구박하고, 남의 집에서 얻어온 밥과 반찬을 바가지째로(바가지째로) 남편에게 내던진다. 19번 각편의 결말에서는 지네각시가 여자가 되어 남주인공과 부부가 되고, 전처소생들까지 거두어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이러한 구술 양상은 여성 19번 제보자의 경험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여성 19번 제보자는 19세에 재혼인 13세 연상의 남편과 결혼하였으며 전처소생인 남매를 키웠다. 남편을 따라 오랫동안 객지생활을 하였으며, 일본에서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남편을 대신하여 생계를 책임졌다. 해방이 되자 귀국한 후에도 병든 남편을 대신하여 가장 역할을 하였다. 제보 당시에는 전처소생인 만아들 부부와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 19번 제보자는 오히려 무능력하고 병까지 든 가장은 선하게, 전처를 악독하게 묘사함으로써 가난하여 처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에게 동정심을 보여주고 있다. 19번 제보자는 지네각시가 ‘병든’ 남주인공을 부양하는 것은 물론 전처소생들까지 거두어들였다고 함으로써, ‘지네각시’와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있다. 19번 제보자는 병든 남편을 대신하여 가정을 돌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남주인공에 대한 동정심과 남편을 내쫓은 부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보여준다. 19번 제보자는 가부장제도하에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그 의식세계에 순종적인 아내의 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위 여성 8, 13, 14, 19번 제보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남편과 일찍 사별하거나 남편이 병이 들어서 가장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경험이 ‘가난하여 가정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을 남주인공으로 형상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 제보자들은 가난하여 가정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과 직접적으로 동일시하기보다는, 동성(同姓)인 ‘남주인공의 부인’ 또는 ‘지네각시’와 동일시하여 가난한 가장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13번과 같이 남주인공의 부인과 동일시하여 가난하여 처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은 무능력하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8, 14, 19번 제보자의 경우와 같이 가난하고 무기력한 가장에게 동정심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14, 19번 제보자는 지네각시와 동일시하여 남주인공을 돕는 지네각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13번 제보자는 남주인공의 무능력을 강조하여 표현하면서도, 결말에서는 남주인공을 내쫓은 원부인이 아닌, 남주인공을 도와준 여우각시와 남주인공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서술한다. 따라서 13번 제보자가 가부장적 제도하의 순종적인 여성상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번 제보자 역시 가장의 무능력으로 인해 고생했음에도, 가난한 가장에 대한 동정의 시선을, 남편을 저버리는 전처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동시에 그를 돕는 지네각시에 대한 호의적인 시선을 보여준다. 따라서 19번 제보자의 의식 속에 가부장적 제도하의 헌신하는 아내의 역할과 의무가 내재해 있음을 보여준다.

2. ‘가난하여 결혼할 수 없는 총각’ 유형과 동일시 양상

‘가난하여 결혼할 수 없는 총각’ 유형은 남성에게서는 9편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여성에게서는 12번 각편이 유일하다. 여성 12번 각편은 떠돌아다니던 소금장수가 지네각시를 만나 잘 살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줄거리 위주의 구술방식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에 대한 동일시 양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성의 각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남주인공을 ‘가난하여 결혼할 수 없는 총각’으로 형상화한 남성 제보자 중에서, 특히 3, 13, 23, 30번 제보자는 젊을 적에 고향을 떠난 경험이 있었다.

옛날에 참 어느 총각이 필러개이질을 하던가이 거석해 가꼬 장 오데든지 돌아맹긴단 말이라. 돌아맹기는 기, 한번은 어느 참 거석을 간께네, 아무데도 사람도 없는

이런 어느 거석한데를 간께네, 한 이뿐 색시가 나타나민선, “아이, 아이 당신겔은 사람 만내기를 원했다.”

[...] “요것만 하미는 당신도 어데 가더라도 참 배필 만내가꼬, 이만 하만 어데 가더래도 갖고 멩기머는 머 목고 살 정도는 된께네, 요걸 가지라.” 이러카민선 그 새덕이가 자기 품안에서 물건을 주민서 “그것만 갖고 있으면 당신은 살킨께네, 갖고 멩기면 어데 가도 산다.”

(남성 3번, 『8-6』, 99/101쪽)

예전에 한 농부가 남의 집에 머슴을 시는 것이 사십 세가 되도록 살았다 이기야. 근대(그런데) 하루는 들판에서 나무래 일을 하고 으, 인제 정지나무 밑에서 떡 쉬는데, 그 행차가 가고 그 슬래를 봄으면서 가는 걸 떡 보니 자기는 평상(평생)에 사십이 되두록 남의 집 머슴을 살민서(살면서) 저저런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복이 좋아서 으, 저렇게 으, 끝을 가는데, 나같은 사람은 부부지정도 모르고 남의 집 머슴이라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신세라.

[...]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자식 낳고 이러구서는 호의하게 그제서는 잘 살드래. 그런 일이 있어.

(남성 13번, 『2-5』, 276-278/282쪽)

그 인제 집에서 참 빈한하게 이래 지내다가, 나가다가 참 한 군데는 가니 질도 절도 없고, 저 산곡으로 드갔어. 드가주고 여 그래, 머머 자모 어두바가주고 머머 어데 찾아갈 데도 없고

[...] “인지는 내가 옳은 사람이 된다”고 그래가주 잘 살드라고.

(남성 23번, 『7-6』, 302/305쪽)

이전에 참 외로운 사람 하나가, 총객(총각)인데, 아 이걸, 도저히 머 일가친척이 있으까, 아무도 등도 배도 델 때가(테가) 없어서 장 떠돌아 멩기는데, 이 사렘이 ‘아이고, 내 항상 요 모냥 요 꼴일 끼니 내가 이 곳을 떠난 수밖에 없다.’ 그래 인자 떠나 가는데, [...] 찾아 가니 억지로 더듬더듬 찾아 가니케 웬 처자(처녀)가 아주 꽃다운 처자가, “아이고 이 밤에 오데서 이런 손님이 오셨나?”

[...] 그때 용이 되가지고, 구리가 용이 되가지고 저 올라가민서, 퐁지를 비비 틀미, 그런 형상이 났더랍니다. 고거 그 끝에는 인자 참, 배필을 만내가지고,

(남성 30번, 『8-5』, 672/674쪽)

남성 3번 제보자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총각을 형상화하고 있다. 남성 3번 제보자는 젊을 적에 이집 저집을 전전하며 노동일로 생활하였다. 예쁜 각시가 “아이, 아이 당신겔은 사람 만내기를 원했다”라며 반겨줬다고 묘사한 부분은 젊은 시절 이리저리 다니며 지냈던 고생스러움에 대한 보상심리로 보인다. 남성 3번 제보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현재는 부유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남성 3번 각편의 결말에서는 남주인공이 부를 획득하면서 동시에 배필을 만나게 하는 '기물'을 지네각시에게서 받게 된다. 별 볼일 없던 가난한 총각이 행복해지는 결말은 제보자의 인생과 연결된다.

남성 13번 각편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하는 40세 넘는 노총각이 화려한 행차를 보고 부러워하는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남주인공은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복이 좋아서' 부자로 사는데, 자신은 가난하여 결혼도 못 하고 '부부지정'도 모르는 외로운 처지에 있다고 한다. 13번 제보자는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타지로 이주하여 자리를 잡았다. 13번 제보자가 일찍이 고향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했던 과정은 부모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남의 집에서 일하는 외로운 처지의 남주인공의 것과 겹친다. 남성 13번 제보자는 머슴살이를 하는 노총각이 사람이 된 어여쁜 지네각시와 부부가 되어 자식을 낳고 사는 것으로 결말을 맺음으로써, 타지에서 자리 잡아 가정을 이루어 잘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출하고 있다.

남성 23번 각편은 남주인공을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으며, 지네각시가 여자로 변한 후에 남주인공과 부부가 되어 잘 살게 되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다. 23번 제보자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기에 고향을 떠나 한국의 격변기를 직접 보고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는 남양군도로 징용 가서 알루미늄 공장에서 일하였다. 귀국한 뒤 부산에서 노동일을 오랫동안 하였으며, 15년 전에 귀향하여 내외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다. 23번 제보자는 여기저기 돌아다닌 점을 강조하였는데, 전국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돌아다녔다고 한다. 특히 제보자는 젊은 시절 객지를 떠돌다 들은 '지네각시 설화'를 오랜 세월 후에 구술하고 있다.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당시 제보자의 상황과 겹치면서 '지네각시 설화'가 '가난하여 결혼할 수 없는 총각'의 이야기로 오랫동안 기억되고 보존된 것으로 보인다.

남성 30번 제보자의 경우에도 일가친척 없이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총각이 꽃다운 처자를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였고, 구렁이 각시가 등천한 후에 배필을 만나서 잘 살게 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남성 30번 제보자도 젊을 적 객지를 전전하며 노동일을 하다가 나이 들어 고향에 안착하였는데, 제보자의 경험을 반영하는 떠돌아다니는 총각의 형상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13, 23, 30번 제보자는 젊었을 적 객지로 이주하여 노동일로 생계를 이어나간 경험이 있으며, 이들 남성 제보자는 남주인공을 가난한 데다가 외롭기마저 한 총각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편의 남성 제보자들은 객지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서러움’을 ‘지네각시 설화’의 ‘가난하여 결혼할 수 없는 총각’과 동일시하여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한량’ 유형과 동일시 양상

‘한량’ 유형은 남녀 모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하지만, 남성 제보자의 경우는 ‘③-2 부자이지만 한량 노릇을 하다 가난해진 경우’가 10편으로 가장 많다. 여성 제보자의 경우는 오히려 ‘③-1 가난하지만 한량 노릇을 하거나 게으른 경우’가 4편 있으며, ‘③-2’ 유형은 없다.

‘③-2’ 유형은 한 집안의 중시조(中始祖)²¹⁾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③-2’ 유형에 속하는 남성 10편의 각편 중 5편(7, 14, 16, 38, 41번)이 그러하다.

그런데 장원 안에 여 박팔보(박팔봉)이라고 하는데. 있는데, 장안에 늘 거 갑보(갑부)라. 갑본데, 활래(활량)이그던. 그저 술이나 묵고 그저 마마 기생의 집에 가가. 마마 막 씨대는 파(판)이지. 씨대고 이래 하는데, 장안의 갑보로서, 돈, 사오년 동안에 다 썼부렀그던. (청중: 활래이 되다 보이 안 쓰고 어야노.)

[...] (조사자: 그거도 어른 집안 이야깁니까?) 저 내 집안 이야기, 우리 박가야도 어디 여러 판데 며, 우리 박가들이 인자 팔남 처에 인자 여러 판데, 그 집이가 제일 아조에 잘 났그던. 그 영의정이 둘 머머 둘 났지러. 나고, 대대로 자손이.

[...] (조사자: 박팔봉이라 키는 분이 어느 박씨지 잘 모릅니까?) 발렴(潘南)이라.

(남성 14번, 『7-2』, 104/113쪽)

이전에 반랍 박씨 시조가 날 백 냥을 썼다 그래. 살림이 얼마나 있든지 뭐지 간에, 날 백 냥을 써. 하루 백 냥씩 꼭 써거든. 장에 나가든 쓰고 오고, 쓰고 오고. 나중엔 짜 다 까 무뎌이 살림이 없다. 까뭇으이 돈이 없인께네, 인자 고마 할 수 없이 죽을라고 말이지, 저어 저 산에 올라가서 바우 끝에 가서 그만 목을 매가지고 죽을라고

21) 쇠락한 가문을 다시 세운 조상을 말한다.

[...] 그리고 보이 자기 허물 벗긴거, 허물 벗어가, 방에 가본게 참 지네 허물을 방에다 벗어냈다. 그래가 살았다, 인자. 반람 박씨 시조가 그러라, 내나. 그런일이 있었어.

(남성 38번, 『8-14』, 700/702쪽)

안동 가면 김해김씨, 거기도 인자 시조가 아니지, 중시조지, 근대 그분이 한 천석 따냈어. 그래 그분이 마음이 좋아 가지고서 매년 그 근방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은 돈도 주고, 쌀이 없는 사람은 쌀도 주고, 받들 안혀. 그냥 무료봉사 하여 없는 사람들. 다 그러다가 한 천석군 살림이 다 없어졌단 말이여.

[...] 그래서 굴서 가지고 그 보물 다 갖고 가서 그 재산을 도로 가지고 살았다. 천십이 양심을 돌봐서 그것이 김해김씨 중시조여, 그게 양심이 옳은 것이여.

(남성 41번, 『5-3』, 667-668/671쪽)

예전에 참 어느 사람이 구대 진사고, 구대 부잔데. 그래 인제 살림도 그 유부(유복)하고 잘 사든 집인데. 그 십대만에 가서 아들이, 외동 아들이 하나인데. 그 살림이 그러저럭 다 줄었부리고, 아무것도 없그던.

[...] 그래 자기 집을 찾아가 보이, 참말로 인제 맹 참 차기 부모도 안죽(아직) 살았고. 그 인제 안부모가 안주 살았는데, (빠르게) 안부모도 살았고 처자권속도 다 이래, (본래 소리로)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잘 사드라네.

(남성 7번, 『7-9』, 420/426쪽)

그래 인제 여들 살 이흠 살 먹을 때부터 기생들 가가지고 노는거죠. 매일 투드러 먹고. 그러이께 물론 돈이 많아야 친구가 있죠. 술도 사줘야 친구구 그래 인제 아버지가 인제 매일 고심하는거죠. 위딱하다가 늦게 늦자식 하나 두었는데 저래 되면 위딱하나. 공부 좀 해라해두 앓구. 그래 인제 아버지는 그만 합병으루 죽었어유. 참 하다 하다 안되가지구. 그래 인제 이 자식이 딱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인제 보이는 게 없잖아유 막말루. 그러이께네 재산 탕진을 시작하는기유 막 팔아다 조지는거죠. 인제 그러다가 엄마까지 죽었어유.

[...] 저 이세들한테 하나에 멋있는 거를 남겨주자. 그래서 절을 하나 세웠대유.

(남성 16번, 『4-1』, 474/483쪽)

14번 각편에서는 반남박(潘南朴)씨 집안의 '박팔봉'이라는 남주인공이 장안의 갑부로 등장하며, 한량 노릇을 하다가 기생집 등에서 재산을 다 탕진한다. 38번 각편에서는 역시 반남박씨의 한 조상이 매일 백냥씩 쓰다가 재산을 탕진한다. 41번 각편에서는 안동의 김해김(金海金)씨 중시조가 마음이 선하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천석꾼 살림을 다 탕진한다. 14, 38, 41번 각편의 남주인공은 지네각시를 만나서 탕진한 재산을 다시 되찾게 된다. 특히 14번 각편은 제보자의 집안 이야기이다.

14번 제보자는 박씨 중에서도 자신의 집안이 제일 관력(官歷)이 좋았다고 하면서, 박팔봉과 지네각시의 자손 중에서 영의정과 도지사 등이 배출되었다고 하였다. 14번 제보자는 선대까지는 글을 잘하였으나 자신은 글을 잘하지 못함을 언급하였는데, 한량에서 중시조가 된 남주인공과 달리 집안에 도움이 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은근히 부끄러워함이 관찰된다. 38, 41번 제보자는 해당 집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한 집안의 중시조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38번 제보자는 아들들이 삼정승이 되었다고 덧붙였으며, 41번 제보자는 부자지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렁이굴의 보물을 얻었다고 구술하였다.

남성 7번 제보자는 안동의 반촌에 누대로 살아온 안동김씨 토박이다. 7번 제보자는 남주인공을 한 집안의 중시조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9대째 유복하던 집안이 복이 없는 10대째 외동아들에 의해 망하였는데, 미꾸라지 각시를 만나 부모, 처자 권속이 부유해졌다고 구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안동김씨의 중시조를 이야기하는 듯하다. 또한 16번 제보자 역시 남주인공이 지네각시와 백년해로하여 자자손손이 잘 살게 되어 이를 후대에 알리고자 절을 세웠다고 구술하고 있어, 한 집안의 중시조 이야기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남성 28번 제보자는 남주인공의 모습을 ‘과거 준비하는 한량’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제보자의 예술적 기질과 개인적 이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8번 제보자는 엄격한 유교적 가풍 아래 성장하였으나, 14세에 가출하여 한성권번에 들어갈 정도로 예술에 대한 취향이 남달랐다. 28번 제보자는 자신의 예술적 기질을 살려 군에서 사진기술을 배웠으며, 제보 당시에는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악대 장구재비이자 국악협회의 간부로 활약하고 있었다.

참 백만장자의 자식인데 불행하게도 아버지를 잃고 편모습하에서 참 자라면서 공부를 했는데 글 재주가 좋고 또 아주 미남이여. 거기다가 아주 한량이다 이런 애깁니다. 그런 사람인데 참 공부를 많이 해 가지구 과거를 보러 참 한양으로 떠나는 길인데, [...] 그 한강 백사장에 포장을 쳐 놓고 그 참 많은 호걸들이 모여 들어서 활들을 쓰고 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노는데 그제 눈에 선하거든. 그래 배를 건너가서 과거장으로 가지를 안 하고서 그 놀이판으로 들어갔어. [...] “너의 아버지가 물려 준 재산을 내가 전부 탕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재산이다. 마지막 재산이니 그런 줄이나 알고 다 써라.” 그래 어머니도 통이 큰 양반이지.

[...] “자기는 기왕 죽기로 결심을 하고 술하고 독약을 가지고 그 산중에 들어가서 참 자살을 할려고 했는데 다만 몇 시간이나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은 이 여자의 덕인데 똑같이 요물은 다 같은 요물인데 이 여자를 죽일 수가 없다.”

[...] 이래 복을 타고 난 놈은 떨어 먹어도 밤낮 한가지란 얘기에. “제 복은 제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

(남성 28번, 『3-2』, 121-129쪽)

남성 28번 제보자는 남주인공을 풍류를 즐기면서 재산을 탕진한 한량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한량인 아들에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재산을 내어주는 어머니를 통이 크다고 표현하고 있다. 28번 제보자는 자신의 예술적 기질과 상관없이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하도록 강요받아 온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심리로 한량인 아들에 대해 너그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보자는 지네각시가 ‘가족을 부양해줬기 때문이 아닌, 지네각시 덕분에 몇 시간이나’ ‘즐겁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지네각시를 죽일 수 없다고 구술한다. 이러한 표현에서 제보자의 풍류를 즐기는 기질을 감지할 수 있다. 더구나 제보자는 ‘제 복은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부모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였으나 곳곳이 예술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다.

③-2 부자이지만 한량 노릇을 하다 가난해진 유형은 여타 남주인공의 형상보다 가문의 부흥이라는 극적인 성취를 이루는 인물 유형으로 환상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③-2번 유형의 각편을 구술한 제보자들의 현실적 삶은 중시조로서 가문을 번창시킨 남주인공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14번 제보자(제보자 가문의 중시조 이야기임, 선대까지는 글을 잘했으나 자신은 글을 잘하지 못함)를 비롯하여 7번(반촌에 살아온 안동 김씨 토박이, 한문 익힘, 농사일), 38번(면서기, 한학, 보통학교 줄), 41번(사랑방 출입하면서 풍수, 효도, 역사 인물 이야기 즐김) 제보자는 한학을 하거나 유교적 가문의 배경에서 자랐으나, 집안을 빛나게 할 만한 업적을 이루거나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 같지는 않다. 이들은 지네각시의 도움으로 새로이 가문을 일으킨 남주인공과 동일시하면서, 환상 속에서만나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며 대리 만족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남주인공이 ‘③-1 가난하지만 한량 노릇을 하거나 게으른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성 제보자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여성

3, 10, 18, 21번 제보자가 이에 해당한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빈한해. (조사자: 가난해요.) 비난하다고. 참 빈한해. 빈한하니 그냥 남편이 날마다 여자는 빨래품만 팔아. (조사자: 남편은 무엇하고요?) 남편은 잠만 자고. (조사자: 남편은 잠만 자고.) 날마다 바느질 품팔고 빨래 품팔고 해서 남자를, 그렇게 아이들 삼남매를 벌어서, 저녁에 쌀 한되 갖고오고 반찬도 사고해서 갖고 들어와갖고는 인자 밥을 해서 줘. (조사자: 그러니까 봉양을 하는거죠.) 그래서 인자 주는데, 날마다 남편이 먹고 아랫목에 가서 누웠어. (조사자: 그 사람은?) 옛날 고등낙수 시대차기만 기다리고. (조사자: 네?) 고든 낙수 시대차기만, (조사자: 곧은 낙수요?) 낙수질을 현 사람마냥으로 먹고 낙수질만 한다 말이여. 그러테끼이 남자도 먹고 자. 아름 목에서 잠만 자는데. 여자가 험단 말이, “여보 그러코 날마다 잠만 잘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읊어서 이러는가 당신이 복이 읊어서 이러는가 한번 우리가 갈려 살시다.” 그랬어.

(여성 10번, 『6-8』, 502쪽)

어는 노인이 할마이가 할마이가, 인자 아들은 인자 하나 키워서 논끼네 아무 것도 일 안하고 장 누서 놀라 캐요. 누서 놀고 이 아무것도 하도 안하고 그래서 하도 하로 아직에는 부애가 나서

[...] 머 참 그 두사람이 허물 그걸 말강 못 벗어나서 그렇지, 잘 살았다 캐요. 아들 딸 사 남매 놓고 그리 잘 살았다 캐.

(여성 18번, 『8-5』, 1107/1110쪽)

이전에 한 사람은 먹을 것은 없고 아들은 수복이 낳아놓인께네 먹을 기 없어. 그래서 인지 있으면 또 놓을 터이고, 삼사월 됐거던. 그런데 인지는 고만 농구로 나갔어. 인제 이 남자가 오입을 갖는 기라.

(여성 21번, 『7-12』, 158쪽)

김활량, 이 사람이 활도 잘 쏘고 이래 가 호부래비로(홀아비로) 떡 땡기는데 한번에는 활을 떡 금강산에 가 쏘고 그레가 활집을 떡 울러메고 정치없이 떡 오니까네 온연히 하늘에서 우자작 우자작 하디이 막 노성벽록(뇌성벽력)을 치고 말이지, 막 비가 내리는 기라.

[...] 그레 그러니까네 한 삼년을 그런 세월로 혼차 땡김서 그 보물로 팔아 갖고 묵고 장개도 안 가고 자양 그 여자만 사모하고 있는 기라. 만날 그레 그 사람이 술로 묵고 울고 땡기는 기라.

[...] “그러몬 나는 하늘에 올라와 가지고 내 딸하고 살면 니는 비 내루는 그런 기술로 벨로 주마.” 그래서 그 해 김활량이 올라가서 비로 많이 내려 보내고 대풍년이 돼 가지고 그레가 잘 사터랍니다.

(여성 3번, 『8-10』, 454/457/458쪽)

여성 10번 제보자는 게으른 남편을 둔 부인과 동일시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남편이 '잠만 자고 일을 하지 않아서 부인이 빨래품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10번 제보자는 게으른 남편 덕에 고생하는 부인의 모습을 강조한다.

여성 18번 각편은 일하지 않고 게으른 아들에게 화가 난 홀어머니가 아들을 쫓아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18번 제보자는 일찍 사별한 듯하며, 제보자의 외동아들은 21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소식이 끊겼다. 제보 당시 며느리, 손부와 함께 여자들끼리 살고 있었으며, 외동손자는 외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다. 여성 18번 제보자는 자신의 처지와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여, 아들 하나 키운 남주인공의 어머니인 '홀어머니'와 동일시하고 있다. 또한 제보자는 지네각시가 '허물을 덜 벗었음'에도 실패하지 않고 남주인공과 부부가 되어 '아들 딸 사 남매를 낳고 잘 살았다고 결말짓고 있다. 18번 제보자가 말하는 행복한 결말은 다복한 자녀들에 있는 것으로, 생사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외동아들과 결별하여 외롭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허구에서나마 위안받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난다.

여성 21번 각편 역시 가난하고 아들은 수북한데 기생집을 다니는 남성이 주인공으로 설정된다. 여성 3번 각편은 남녀의 애정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활 잘 쓰는 한량인 남주인공이 이별한 지네각시를 그리워하다가 결국 해후하는 낭만적 결말을 보여주는데, 퇴기로 추정되는 제보자의 개인사와 연결될 수 있다.

위의 여성 10, 18번 각편은 아내와 어머니의 입장과 동일시한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가장의 게으른 태도가 변화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무능력한 남주인공을 '복이 없어서'라고 표현하거나(여성 10번), 홀어머니에게 쫓겨난 게으른 아들이 금기를 어겼지만 '사람이 덜 된' 지네각시와 아들딸 낳고 백년해로한다고 하여(여성 18번), 가장인 남성에게 대해 동정적인 시선을 보여준다.

'한량' 유형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인식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③-2 부자이지만 한량 노릇을 하다 가난해진' 유형이 많다. 남성 제보자들은 부자로 태어나 젊을 적 호탕하게 살면서 비록 재산을 탕진했어도 다시 회복하고 그 자손들이 관직을 획득했다는 이야기를 통해, 환상 속에서나마 부와 명예를 성취하고 싶은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③-1 가난하지만 한량 노릇을 하거나 게으른 유형이 많으며,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게으른 남성이 변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결국 동정의 시선을 보여주고 만다.

4. ‘선비’ 유형과 동일시 양상

남주인공이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로 나타나는 각편은 남성의 경우 24번이 유일하다.

벼슬 해보겠다고 구사하로 올로간 일이 있는데, 서울 가가주고 그래도 이 참, 돈을 좀 가주 갖지마는 거 가서 며 몇 달 있어보이 벼슬은 잘 되도 안하고, 며 몇 번 갔다 왔다 하느라고 살림만 다 떨어 먹었어. 그래서 하루는 화가 나가주고 서울서도 어쁜 이래 저-머 좋은 유곽이었던 모양이래. 떡-참 놀로 가서 밤에 달은 흰한테 혼자서 한숨만 하고 있다.

(남성 24번, 『7-6』, 380쪽)

24번 각편의 남주인공은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왔으나 실패하여 낙심한 상태이다. 화가 나서 유곽에 놀러갔으나 흥도 나지 않아 한숨만 쉬고 있다. 24번 제보자는 한학을 했으며 오랫동안 훈장을 한 경험이 있다. 한국전쟁기에는 그 혼란을 피해 산에서 4년간 승려생활을 하였다. 4년간의 승려생활은 제보자에게 충격으로 남은 듯한데, 제보자는 혼란한 세상에서 도피하여, 유학적 신념을 접고 불교에 관계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했다.²²⁾ 제보자는 한학에 조예가 깊고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가졌지만 시대적 변화와 혼란 속에 마음껏 뜻을 펼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개인적 배경을 가진 24번 제보자는 ‘가장’의 모습과 동일시하는 대부분의 남성 제보자와 달리, 유일하게 ‘벼슬길에 들어가지 못하고 살림만 떨어먹은’ 낙심한 선비의 형상과 동일시한다.

여성 제보자의 경우에는 ④ 유형이 모두 3편으로 나타나는데, 4, 9, 20번 각편이다. 여성의 경우, ③-3 가난하지만 학자 유형’도 6, 15번 각편이 있어서 학자 또는 선비의 유형이 모두 5편에 이른다. 반면 남성은 학자 또는 선비 유형이 2편에 불과하다. 특히 여성 4, 6번 제보자의

22) 『7-6』, <달산면 제보자 3>, 267쪽.

정보는 여성 제보자들이 남주인공을 ‘선비’ 유형으로 형상화하는 이유를 추측할 수 있게 한다.

그래고서 한 사람은 서울루다 과거를 하러 갔는데, 옛날에 육로로 걸어 땡기니깐 아주 지픈 산골로 인제 참, 과나리 보따리 해 짊어지고 인제 선비가 과거를 하러 가느라고 이렇게 가는데, 지픈 고 고갱이를 넘어 가는데, 큰 고개를 넘어 가는데 해가 늦졌어.

[...] 거 집으로 도루 돌아오니까니 인제 이 남자 욕심에는 여자를, 과거를 하고 아내를 삼을 줄을 알구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벌써 용이 돼서 올라 갔어.

(여성 4번 제보자, 『2-6』, 621/624쪽)

옛날, 사람이 아주 학자라. 나락을 널어놓고 비가 소내기가 와도 걸어도 안 보고 바람이 불어 집이 다 날라가도 걸어도 안 보고 만날 책만 보고 들었았거든. 할마이가 살라카이 답답해 가지고 영감을 구박하다가, 7월달이 돼 가지고 들에 방천이 툭 터져 가지고 논 서마지기 썩 썰어 묻어 버렸어. 그래놓고 집에 들어와 보니 영감은 책만 들다보고 앉았는기래. “야 이놈의 영감아 자식 서이 다 굶기 직이겠다. 뒤 묵고 살라고 책만 들고 이래 놓고 앉았노.”

(여성 6번, 『7-5』, 30-31쪽)

여성 4번 각편은 가난한 가장과는 거리가 먼,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가 남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여성 4번 제보자는 교육받은 적이 없으며, 글을 모르는 것 때문에 가끔 멸시를 당하여 배우지 못한 것에 한이 있다고 하였다. 남편(국민학교 졸, 서당 교육)이 남양군도에 징용 갔을 당시 두고 온 여자와 편지를 왕래하던 것에 자극을 받아 스스로 국문을 익혔다고 했다. 못 배운 것에 대한 제보자의 한이 지식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선비’로 나타나는 남주인공의 형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여성 4번 각편의 결말에서 남주인공은 과거에 합격하였지만 등천하게 된 지네각시와는 이별하게 된다. 4번 제보자는 지네각시를 부인으로 삼으려는 남주인공의 욕심이 좌절되었다고 하면서 남주인공의 여성편력을 은근히 비난하고 있다.

여성 6번 제보자는 남주인공을 학자(영감)로 설정하여 집안일에 관심이 없어서 구박받다가 결국 할마이(부인)에게 쫓겨났다고 구술하고 있다. 여성 6번 제보자는 남녀 불문하고 한학에 조예가 깊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학자 영감을 주인공으로 형상화한 듯하다. 여성 6번 제보자는 제보자의 현실과 유사하게 ‘영감’을 남주인공

으로, ‘할머니’를 아내로 형상화하여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험세계와 상흔을 동일시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남녀 제보자 모두 남주인공으로 ‘가난하여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의 모습을 가장 많이 형상화하고 있는데, 동일시 양상에는 남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가난하여 가정을 부양할 수 없는 남주인공과 동일시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특히 ‘자식’과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아내에 대한 동정의 시선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지네각시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을 한다.²³⁾ 여성의 경우 ‘남주인공의 부인’ 또는 ‘지네각시’와 각각 동일시하여, 가장인 남주인공의 무기력함을 경계하거나, 남주인공을 동정하고 그를 돕는 지네각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주인공의 부인과 동일시하여 가장의 무기력함을 경계하는 여성 제보자의 경우에도, 부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고 지네각시의 역할을 수용함으로써 가부장적 제도하에서의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난하여 결혼할 수 없는 총각’의 모습은 남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객지를 전전했던 젊은 시절의 경험이 있는 남성 제보자들의 경우 외로움의 정서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가난하여 결혼할 수 없는 총각’의 모습은 여성 제보자에게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데, 이는 여성이 경험해 보지 않은 세계이자 관심 밖의 영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량’의 경우, 남성은 재산을 탕진했으나 지네각시의 도움으로 회복하고 오히려 더 번성시킨 중시조의 모습으로 주로 구술하고 있다. 이 유형의 남주인공은 남성 제보자들의 현실적 삶과 거리가 있다. 제보자 본인의 가문 이야기이든 아니든, 현실의 삶과 거리를 둔 남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척박한 현실을 벗어나 환상 속에서나마 그들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여성은 ‘가난한 형편에도 게으른 한량’을 남주인공으로 형상화하여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으며, 지네각시의 헌신적인 역할을 수용하고 있다.

23) 지네각시의 헌신적인 모습은 IV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특히 ‘지네각시 설화’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에 남편과의 사별 또는 자녀들의 죽음 등을 경험했던 여성의 고통이 드러난다. 여성 19번의 경우, 청중들은 제보자가 겪은 고난을 처음 들었다며 놀라워하였는데, 이야기를 구술하는 과정을 통해 상처가 외재화(外在化)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지네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의식세계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남성 제보자에게서는 ① 가난하여 처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20편), ② 가난하여 결혼할 수 없는 총각(9편), ③-2 부자이지만 한량 노릇을 하다 가난해진 경우(10편) 등이 모두 42편(총 44편 중)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여성 제보자에게서는 ① 가난하여 처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10편), ③-1 가난하지만 한량 노릇을 하거나 게으른 경우(4편) 등이 모두 14편(총 21편 중)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우선 남성 제보자들의 경우 ①, ②번 유형에서는 가장으로서 가졌던 부담감 및 경제적 어려움이, ③-2번 유형에서는 부와 명예에 대한 욕망이 드러나고 있었다. 대다수 남성 제보자들이 동일시하는 남주인공은 경제적 부의 필요성과 부에 대한 욕망을 강하게 가진 인물이다. 이러한 남주인공의 경제적 욕망은 ‘지네각시’를 통해 충족된다. ‘지네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지네각시의 이미지를 분석할 때 남성 제보자들의 욕망을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남주인공의 이상적 ‘짝’으로 나타나는 지네각시는 남성의 ‘아니마(Anima)’가 투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마는 남성 내면의 여성적 심리 경향 전반이 인격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²⁴⁾으로 남성의 정신세계와 연관이 있다. 남성의 아니마는 네 번 성숙되어 나타난다.²⁵⁾ 첫 번째 아니마는 본능적 욕구의 대상으로서 여성(원시적인 여성으로 이브의 이미지), 두 번째는 낭만적이지만 여전히 성적인 의미를 포함한 미녀(낭만적인 미인으로 헬레네의 이미지), 세 번째는 성스러우면서도 헌신하는 여성(성

24) 루이제 폰 프란츠 지음. 김양순 옮김, 『개성화 과정』, 『인간과 상징』(동서문화사, 2013), 277쪽.

25) 위의 글, 290-293쪽.

모 마리아의 이미지), 네 번째는 성스러움을 초월한 지혜로운 여성(지혜의 여신 아테나, 또는 모나리자의 이미지)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지네각시는 낭만적이면서도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미인, 헌신하는 아내, 지혜로운 여신의 이미지를 두루 가지고 있어, ‘지네각시 설화’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아나마가 중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남성 제보자가 구술한 각편을 중심으로 지네각시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남주인공과 지네각시의 만남은 밤이라는 시간과 산속의 아름다운 집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각편에 따라 ‘설날그믐날 밤’²⁶⁾, 즉 한 해의 마지막 밤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신비스러운 시공간은 미인으로 등장하는 지네각시에게 낭만적이면서도 은밀한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여기에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는 경우, 지네각시는 ‘과부’²⁷⁾의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하며, 남자를 품어야 등천하거나 사람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기도 한다.²⁸⁾

그래 따라 가니까 혼자 사는 과부 마누라다 이겨야. 집두 아주 단단하게 별당처럼 꾸미고 사는데

(남성 6번, 『1-8』, 325쪽)

나는 지네 허물을 씌어서 내리 보내고 저그 오빠는 구렁이 허물을 씌어서 내리 보내고 그러서 앞으로 인간히고 십년간을 접촉히서 살게 되면은 그 인도환상을 도로 시겨서 이렇게 된다고……

(남성 39번, 『5-4』, 784쪽)

또 다른 지네각시의 형상은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헌신하는 여성의 모습이 투사되어 있다.

그러자 그 이튿날부터 남루한 의복을 전부 벗기군, 지금말루 허면, 이발 같은 거 했다는 거. 옛날에는 망건이 있었으니까 망건 새 것을 주었겠지. 뭐, 그러구 그냥 자꾸 맥여 살리는 거. 그럭저럭 넘긴 게, 십년이란 세월을 넘긴 거. 그런데, 거기서 뭐 일두 안시키구 잘 맥이는 거. 일이란 아무 것도 아니구, 그 천하일씩

26) 남성 1번(『8-14』, 235쪽), 남성 21번(『5-4』, 622쪽), 남성 25번(『7-8』, 716쪽), 남성 31번(『5-4』, 238쪽), 남성 40번(『1-4』, 1021쪽).

27) 남성 6번, 13번(『2-5』, 278쪽), 15번(『7-13』, 484쪽).

28) 남성 19번(『4-1』, 520쪽), 남성 34번(『1-7』, 238쪽), 남성 39번(『5-4』, 784쪽), 남성 40번(『1-4』, 1024-1025쪽), 남성 41번(『4-4』, 760쪽).

미인허구 동거하는 그 일 밖에 없는겨. 그러니께 장가를 다시 들은 거지. 그러니 일을 시켜 뭐 넉넉허니께 그래서, 그 자기 집 식구를 잊고서 십년을 보낸 겨.
(남성 34번, 『4-1』, 236쪽)

아, 집이서도 굶드리 허고, 감서도 굶고 허던 녀이 그 괴기 반찬이다 생선이다 너출허게히서 푸연현 쌀밥으다 히서 잘 채리왔드래야. 그나지나 시장헌게로 야튼 뒤 생각할 것도 없이 먹기는 먹은게로 아, 이놈이 피곤헌게 인자 쪼식쪼식 졸을 것 아녀? 근게로 그냥 비단요 깔아줍서 말여 기무시라네(주무시라네). 그 인자 그냥 벼곤허고 그런게로 생각도 없이 그냥 드러눈 것이 잠들어 버렸지. 그 잠을 자고서나 일어나 보닌게 여전히 집이고 여자도 있어. [...] 그서 아침절이 세수허라고 세숫물 떠 내놔,

(남성 39번, 『5-4』, 779쪽)

가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남편 공경을 하는지, 일도 안시켜 으 자, 이게 뒤 보러 갈 것 같으면은 아, 언내들(어린애들) 모양으로 다가서 아, 똥 다 눈 다음에는 아, 이 밑을 씻쳐주는 게라.

(남성 13번, 『2-5』, 278쪽)

남성 34번 각편의 지네각시는 의복을 새로 해주고, 먹여 살리고, 십년이 넘도록 일도 시키지 않는다. 남주인공은 마치 장가를 다시 든 것처럼, 가장의 의무나 책무는 잊어버리고 천하일색 미인인 지네각시와 동거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한다. 39번 각편의 지네각시는 고기, 생선 반찬에 쌀밥으로 먹이고, 비단요로 재우고, 세숫물을 떠다가 씻긴다. 13번 제보자는 마치 ‘어린이’를 돌보듯 한다고 하며, 지네각시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배푸는 어머니의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깊신 떨어진 사람 신도 사주고, 옷 떨어진 사람은 옷도 새우 사주고, (청중 활인(活人) 하는구나, 인제.) 또 머, 배고파 죽을라 하는 사람 점심도 사주고, 그래 옛 냥을 다 썼지.

(남성 7번, 『7-9』, 422쪽)

“당신이 여즉지(여태까지) 얻어 묵고 살안(산) 복을 푸자몬(풀자몬) 당신도 넘한테(남한테) 적선(積善)을 해야 안 되요? 이런게네, 오늘랑 돈을 갖다가 오십 냥을 지고 가서, 오십 냥을, 오십 냥을 잃어지고 가서 오늘 다 쓰고 오이쇼.”

(남성 26번, 『8-4』, 511쪽)

남성 7, 26번 각편처럼 지네각시는 복 없는 남주인공에게 적선(積善)

또는 활인(活人)을 하게 하여 복을 쌓도록 하는 지혜로운 인도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네 번째 아니마의 모습으로 남성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남성 7, 14, 26, 29, 42번의 각편에서는 지네각시가 적극적으로 남주인공에게 적선(積善) 또는 활인(活人)을 하게 하여 타인을 구제하고 이롭게 하도록 한다. 이러한 지네각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지네각시 설화'의 각편은 복을 쌓아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으로 철학적 차원의 의미가 있다.

판단을 험 적이, 아무리 이 이메기라 하더라도 그렇고, 내 생명이 간다더라도 그렇고, 우리 집 식구가 보구 있으니께, 침 안 뵈고, 그냥 먹었어.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두 무릎을 툇 꿇고 있더니, 자기 아내가 딸이 후르르 하고선 인제야 임자를 만났다는 거 만났단구.

(남성 34번, 『4-1』, 238쪽)

그러나 전반적으로 남성 34번의 각편처럼 헌신하고 희생한 지네각시가 남주인공의 선택을 기다리는 '순종적' 이미지가 더 많이 나타난다. 또한 남주인공은 개인적 차원 즉 자신과 가족을 위해 지네각시에게 보은을 하며, 결국 지네각시로부터 '경제적 부를 획득한다.'²⁹⁾ 이러한 지네각시의 이미지를 적극적인 안내자의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가진 지네각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이 아내인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지네각시의 역할이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것에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네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지네각시의 아니마가 적선과 활인으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안내자보다 소극적이면서도 헌신하는 아내의 이미지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에서 두 가지 의미를 읽어볼 수 있다.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고 자본주의화되는 과정에서, 이에 적응하고자 하는

29) '지네각시 설화'의 결말은 ① 지네각시의 등천하기와 ② 지네각시와 부부되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지네각시의 등천하기와 함께 금(5번), 보물(41번), 토지(12, 22, 25, 28, 44번), 장사(16, 35번) 등으로 인한 부의 획득이 가장 많으며, 배필(3, 30번), 용자(籠子)획득(8번), 자손의 번창(10, 14번) 등도 있다. 지네각시와 부부 되기에 백년해로하면서 '잘' 산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네각시와 부부 되기의 경우 부의 획득은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들의 소망이 철학적 차원보다는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에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여전히 가부장적인 태도로 여성에게 헌신과 희생을 기대하는 남성의 의식을 관찰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남주인공의 아내, 어머니 또는 지네각시와 동일시하고 있다. 가난하여 처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을 남주인공으로 하는 유형의 경우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거나 남편이 몸이 불편하여 가장의 역할을 대신했던 여성 제보자에게서 관찰된다. 이들 여성 제보자는 적극적으로 가장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결말 부분에서 남주인공이 지네각시와 부부가 되어 산다거나 남주인공의 원부인이 악독해서 내쫓김을 당한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여성 제보자들이 가부장적 제도하의 순종적인 아내상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네각시 설화’(『대계』 수록)의 여성 제보자 중 4, 19, 21번은 ‘구렁덩덩 신선비’(『대계』 수록)³⁰⁾를 같이 구술하였다. 4번 제보자가 구술한 ‘구렁덩덩 신선비’의 각편 줄거리는 여주인공인 장자집의 셋째 딸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구렁이 신랑에게 시집을 갔으나 금기를 어겨 구렁이 신랑에게 이별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³¹⁾ 19번³²⁾ 역시 여주인공인 셋째 딸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구렁이 신랑에게 시집을 갔으나, 구렁이 신랑은 과거를 보러 떠나 급제한 후 셋째 딸을 잊어버리고 새로이 장가를 들어 산다. 원 부인을 잊어버린 구렁이 신랑을 찾아가는 것은 셋째 딸의 몫이다. 21번³³⁾의 여주인공인 셋째 딸 역시 아버지의 뜻대로 구렁이 신랑에게 시집을 갔으나 금기를 어겨 구렁이 신랑과 이별하게 된다. 셋째 딸은 구렁이 신랑을 찾고 후처와의 경합에도 이겼으나, 구렁이 신랑은 전처와 후처 모두를 데리고 산다. ‘지네각시 설화’의 여성 4번(남편의 외도를 참고 살았던 경험이 있음), 19번(병든 남편을 대신하여 가장 역할을 함), 21번(자녀를 출가시키고 부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음) 제보자들이 각기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이 구술하는 ‘구렁덩

30) 『대계』에 수록된 ‘구렁덩덩 신선비’의 각편은 모두 48편으로 제보자 모두 여성이며, 이들에게는 가부장적 제도하에서 남편에게 아내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식과 이로 인한 사별, 시누이와의 갈등, 축첩으로 인한 상흔 등이 나타난다. 유진아, 앞의 논문, 31-56쪽.

31) 『2-6』, 618-620쪽.

32) 『7-6』, 578-588쪽.

33) 『7-12』, 140-144쪽.

딩 신선비'의 셋째 딸은 아버지와 남편에게 순종적인 딸과 아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여성의 의식에 가부장적 제도하의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상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지네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경험세계와 상흔을 관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네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의식세계를 고찰하였다.

우선 II장에서는 제보자 정보로부터 남성과 여성 제보자들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으면서 가정을 부양해왔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지네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남주인공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남녀의 동일시 양상을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의 경험세계와 상흔을 관찰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난하여 가정을 부양할 수 없었던 가장'의 모습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 남성을 대신하여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던 경험과 상흔이 구술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난하여 결혼할 수 없는 총각의 모습은 남성에게 나타나며, 경제적 이유로 객지를 전전했던 제보자들의 경험과 외로움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IV장에서는 III장의 동일시 양상을 바탕으로 남녀의 의식세계를 고찰하였다. 남성 제보자의 동일시 양상에서 남성의 경제적 욕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남성의 경제적 욕망은 지네각시를 통해 성취되고 있었다. 남성의 아니마로서 지네각시의 이미지가 주로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아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부장적 제도하에서의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제보자들은 부채중인 가장을 대신하여 고생을 한 경우에도 헌신적인 아내의 역할을 수용하고 있어, 가부장적 제도하에서의 인내하는 여성상에 대한 의식이 여성에게도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김정석, 「『지네각시』설화의 전승과 그 의미」. 『민족문화』 제16집, 1993.
- 루이제 폰 프란츠 지음, 김양순 옮김, 「개성화 과정」. 『인간과 상징』, 동서문화사, 2013.
- 심민호, 「지네 여인 변신 설화」의 지역성과 전승양상.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석사학위논문, 2002.
- 엘리자베트 바텐테 지음, 최석 옮김, 『남자의 여성성에 대한 편견의 역사』. 인바이로넷, 2004.
- 윌터 J. 옹 지음,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14.
- 유강하, 「스토리텔링과 리텔링」. 『중국소설논총』 31, 2010.
- 유진아, 「구렁덩덩 신선비」에 나타나는 여성의 스키마와 상흔. 『정신문화연구』 143호, 2016.
- 이지영, 「용사설화의 측면에서 본 <지네처녀> 설화」. 『구비문학연구』 4집, 1997.
- 정운채, 「우울증에 대한 문학치료적 이해와 <지네각시>」. 『문학치료연구』 제5집, 2006.
- _____,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200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1-8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1988.

국 문 초 록

이 글은 제보자 정보와 연계하여 ‘지네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제보자의 경험과 상흔을 관찰하고, 남성과 여성의 의식세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나타나는 65편의 ‘지네각시 설화’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약 70%가 남성 제보자로부터 채록된 것이다.

우선 남성과 여성 제보자의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이들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으면서 가정을 부양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지네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동일시 양상을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의 경험세계와 상흔을 관찰하였다. 우선 남주인공의 유형을 가장, 가난한 총각, 한량, 선비 유형으로 크게 분류하였고, 이에 대한 남녀 제보자의 동일시 양상을 관찰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난하여 가정을 부양할 수 없었던 가장’의 모습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에 겪은 경제적 어려움이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부재중인 남성을 대신하여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던 경험이 구술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난하여 결혼할 수 없는 총각’의 모습은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경제적 이유로 객지를 전전한 제보자들의 경험과 외로움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녀 제보자의 동일시 양상과 지네각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여 ‘지네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남녀의 의식세계를 고찰하였다. 남성의 의식세계에서는 남성의 강한 경제적 욕망이 가부장제도하에서의 헌신적 아내의 모습을 한 지네각시에 의해 성취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장의 무능력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헌신적인 아내상을 받아들이는 여성 제보자들을 통해, 전반적으로 가부장제도하에서 살아온 남성과 여성 제보자들의 의식세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투고일 2016. 9. 20.

심사일 2016. 10. 31.

게재 확정일 2016. 11. 14.

주제어(keyword) 지네각시 설화(*Jinegaksi*), 남성 제보자(male narrators), 여성 제보자(female narrators), 경험세계(Experience), 상흔(Trauma), 의식세계(consciousness), 남성의 아니마(Men's Anima), 일제강점기(The Japanese ruling era), 한국전쟁(The Korean War), 가부장제도(patriarchal system)

Abstracts

Men's and Women's Experience and Consciousness in Korean Folktales, *Jinegaksi*(지네각시 설화)

Ru, Jin-ah

This study observed Men's and Women's Experience and Consciousness in Korean Folktales, *Jinegaksi*(지네각시 설화) on the basis of informations of 62 narrators in *Collections of Korean Oral Literature*(『한국구비문학대계』). Almost 70% of these narrators are male. Firstly, from narrators' informations, there is confirmed the fact that men's and women's narrators had been suffered economically from under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Korean War, having supported their children, and parents. Secondly, it observed men's and women's Experience and Trauma through identification with characters. It categorized hero into four types: a head of household, a poor unmarried man, a playboy, and a classical scholar. Both men and women sympathize with a head of household who cannot support their family because he is so poor. Also, economic difficulties of Japanese ruling era and Korean War are exposed in their process of dictating. Especially, there are observed traumas from female narrators who had been in charge of their family instead of their husband who had died early or had been in bed during the Japanese ruling era and the Korean War. Male narrators who had lived away from home for financial reason in their youth, identify with poor unmarried man and reveal their experience and loneliness. Lastly, through men's and women's identification and *Jinegaksi*'s images as Anima, this writer confirm men's and women's consciousness. Male narrators reveal their economic desire through identification with a head of household who cannot support their family or a poor unmarried man, and men's economic desire to gain richness through *Jinegaksi* of devoted Anima. Devoted wife's image is demanded under patriarchal system. Even women who had supported their family instead of a head of household, sympathize with hero and accept devoted *Jinegaksi*. Therefore, to both men and women, there are confirmed their agreement to committed wife's image under patriarchal system.

